

"행복한 대전 만들기"

2011 제2차 대전성평등정책 포럼

- | 일시 | 2011년 7월 5일(화) 10시~12시
- | 장소 | 대전광역시청 3층 세미나실
- | 주최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Daejeon Gender Equality & Family Policy Center

포럼 진행 일정

시 간	내 용
09:50~10:03	등록 및 개회 김은하(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연구원)
10:03~10:05	개회사 개회사: 주혜진(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장)
10:05~10:10	환영사 및 격려사 환영사: 이창기(대전발전연구원장) 격려사: 장시성(대전광역시 복지여성국장)
10:10~11:00	주제 발표 “미디어 속의 대전 여성을 다시 만나다” 발표자: 임연희(중도일보 기자) 천지아(대전일보 기자)
11:00~12:00	지정토론 좌 장: 김선미(디트뉴스 편집위원) 지정토론자: 권금상(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김경희(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정연정(배재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12:00~	폐회 정리

2011 제2차 대전성평등정책 포럼 참가자 명단

성 명	소 속	사무실
강금자	대전열린가정폭력상담소 부장	625-5441
강수경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강은혜	대전YWCA 부장	254-3035
권금상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권영국	한밭사랑봉사회 부단장	528-7382
김경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257-3534
김동식	한밭사랑봉사회 단장	528-7382
김명희	대전광역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사무관	600-3541
김선미	디트뉴스24 편집위원	
김수현	대전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252-9989
김영미	대전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252-9989
김은하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생	530-3548
김은혜	대전열린가정폭력상담소 부장	625-5441
김은희	초원미래나눔 대표	
김재춘	(사)한자녀더갓기운동연합/대전서구지부 부지부장	585-4479
김춘경	대전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장	488-2979
김태희	대전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252-9989
박광희	대전광역시청 양성평등교육 강사/혜천대학 전임교수	
박노동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연구위원	530-3523
박동하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팀장	

성명	소속	사무실
백명자	대전광역시증장기청소년여자쉼터 소장	534-0179
송정옥	대전광역시문화재단	477-2282
심희숙	(사)한자녀더갓기운동연합/대전서구지부 지부장	585-4479
안병주	(사)한자녀더갓기운동연합/대전서구지부 부지부장	585-4479
엄미아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오세희	대전광역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장	600-2520
오현숙	대전YWCA 사무총장	254-2819
윤지용	혜천대학 보건복지과 겸임교수	
이부순	구세군정다운집 원장	585-1141
이선옥	(사)대전광역시장애인부모회장	488-9457
이성옥	(사)한자녀더갓기운동연합/대전서구지부 사무국장	585-4479
이영신	대전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 소장	242-5240
이옥분	대전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총괄팀장	252-9989
이유라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530-3549
이종래	대전광역시청 양성평등교육 강사	
임연희	중도일보 기자	
임윤순	초원미래나눔 사무장	
임철순	대전광역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주무관	600-3542
장운정	목원대학교 대우교수	
정연정	배재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520-5142

성 명	소 속	사무실
조진아	대전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252-9989
조혜란	대전광역시교육청 동부다문화교육센터 팀장	253-7589
주혜진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장	530-3522
지성희	동방사회복지회 대전아동상담소장	538-3129
천지아	대전일보 기자	
천현옥	구세군정다운집 사무국장	585-1141
최유리	구세군정다운집	585-1141
최진영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530-3550
한성일	대전여기자클럽회장	220-1150
현승수	(사)한자녀더갓기운동연합/대전서구지부 부지부장	585-4479
황연자	대전광역시청 양성평등교육 강사	

2011 대전성평등정책 포럼¹추진 위원회

성 명	소 속	E-mail
김경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women3534@hanmail.net
김명희	대전광역시 여성정책담당 사무관	kmh5057@korea.kr
김명희	대전광역시 여성정책특별보좌관	kveronica@korea.kr
박노동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연구위원	labourbak@djdi.re.kr
박영애	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yypark@hnu.kr
이영란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교육강사	wqw1003@hanmail.net
정경식	대전여성단체협의회회장	jsk8254@hanmail.net
주혜진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장	hyejinchu@naver.com
한성일	대전여기자클럽회장	sung10920@naver.com

1) 2011년 대전성평등정책 포럼 계획 수립 및 주제 제안에 도움을 주신 분들입니다.

2011 대전성평등정책포럼은

- 대전 여성의 성평등정책에 대한 욕구를 수렴하여 여성들의 다양한 정책제언 사항을 반영하고,
- 젠더관점에서 정책 대안을 발굴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제공하며,
- 지역사회 여성계와의 공조,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대전시의 성평등 정책 수립에 유용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 성인지적 관점과 성주류화 전략의 확산을 도모하며, 이를 대전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2011 대전성평등정책포럼은

다음과 같이 사업을 계획·실행하고 있다.

1. 목 적 : 성평등정책의 필요성 공감과 성인지적 의식으로의 전환, 성주류화 전략의 확산에 대한 공감대 형성
2. 방 법 : 전문가 및 대전 시민을 초청한 정규 포럼
3. 대상자 : 전문가 및 단체(지역사회의 민간단체 종사자, 여성정책 지원사업기관 종사자, 여성복지기관 종사자, 양성평등 강사, 교수, 연구자, 기업인, 종교인 등), 시의회 및 여성정책에 관심이 있는 대전 시민
4. 효 과 : 지역 민간단체 및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통합적 여성정책 수립 및 대전시, 시민, 단체 및 기업 등이 함께 하는 성평등정책 및 성주류화 전략의 확산
5. 시 기 : 3회 예정(2011년)
6. 주 관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주제발표

지역신문 오피니언 면 칼럼실태와 젠더 분석

: 대전·충청 일간신문을 중심으로

임연희

중도일보 부장

지역신문 오피니언 면 칼럼실태와 젠더 분석

: 대전·충청 일간신문을 중심으로

임연희 <중도일보 부장>

1. 문제제기

다매체 환경과 정보 홍수 속에서 신문 칼럼의 위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칼럼에는 보도 기사의 미진한 부분을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시각으로 분석해 보여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판단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 독자들은 전문가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궁금해 한다. 특정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시각은 사안을 보는 독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일반 신문기사와 다른 재치 있고 개성 넘치는 글쓰기는 읽는 재미까지 선사한다. 이런 이유로 칼럼의 가독성이 높아지고 유명 칼럼니스트의 글을 골라 읽는 독자들이 늘어나면서 각 신문마다 독자들의 선호에 맞춰 오피니언 면을 확대하고 게재 칼럼 수를 늘리고 있다(이원섭, 2010).

신문의 오피니언 면은 언론사 내·외부 필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론장이다. 오피니언 면의 기명 칼럼 필자는 사회 엘리트인 동시에 저널리즘 영역에서도 의견 지도자의 지위를 차지한다(박선이 외, 2010). 우리나라에선 1996년 중앙일보가 ‘오피니언 면’이라는 제목의 독립 지면을 처음 만들기 시작했고 이후 종합일간지와 경제신문 대부분이 내·외부 필자의 기명 칼럼을 싣는 오피니언 면을 상설화하고 있다(이재경, 2000). 인터넷과 방송 등과의 속도 경쟁에서 이기기 어려운 매체 성격상 차별화 전략으로 시작한 신문의 오피니언 면은 정책결정이나 여론형성 과정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신문의 다양성과 신뢰성,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콘텐츠로도 중요성을 더해왔다(권장원 외, 2007). 2000년대 들어 한국 신문들은 지속적으로 오피니언 면을 확대하고 있으며 오피니언 면의 열독률 증가 역시 뚜렷한 경향을 보인다(박선이 외, 2010).

중앙일간신문들이 하루 2~3개 면을 배정하는 등 오피니언 칼럼²⁾을 신문사간 차별화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처럼 지역신문들도 1~2개 지면을 오피니언 면으로 운용하고 있다. 대전·충청지역 대표 일간지인 대전일보³⁾와 중도일보, 충청투데이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발행되는 매일 24면 가운데 2개가 오피니언 면이다. 그러나 중앙 일간신문들이 시의성과 논조 등을 고려해 필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체계적으로 운용하는데 비해 지역신문 오피니언 면은 신문사간 특색이 부족하다. 특히 오피니언 칼럼이 가진 중요성에 비해 지역신문 오피니언 칼럼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지역신문들이 ‘지면 메우기 용’으로 오피니언 면을 운용하는 행태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1) 한국의 종합일간지는 하루 평균 2~3개 면을 오피니언 면으로 제작하고 있다. 이 지면의 기명 칼럼 열독률은 2004년 17.6%에서 2007년 19.2%로 증가했다(한국신문협회, 2008). 1면 종합뉴스와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 건강 등 전통적으로 열독률이 높던 지면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과 대비되는 현상이다.
- 2) ‘오피니언 칼럼’에 대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 정의는 없다. 이 연구에서는 신문이 시사성 있는 주제에 대해 신문사 내·외부 필자들의 의견과 주장을 담아 쓰는 기명 칼럼, 에세이, 논평, 시론 등으로 본다.
- 3) 2011년 7월 현재 대전일보는 토요일자 16면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5면을 오피니언 면으로 운용하고 있다. 중도일보와 충청투데이도 토요일자를 발행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대전·충청지역 3개 지역신문이 오피니언 면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오피니언 면 운용 초기인 2002년부터 2006년, 2011년 3개시기로 나눠 필자의 인적숙성은 어떠하며 시기별 신문사간 변화와 차이가 있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또 오피니언 면이 압도적으로 남성 필자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는 지적(박선이 외, 2010) 속에서 이들 지역신문 오피니언 면에 등장하는 여성필자의 인적숙성과 이들이 다루는 주제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찾아보려고 한다.

2.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이 연구는 대전·충청지역 일간신문들이 오피니언 면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분석대상 신문 오피니언 면에 나타나는 필자들의 성별과 인적 속성, 칼럼 주제와 종류, 지면에서의 위치 등을 분석하도록 연구를 설계했다. 특히 지난 1996년 중앙일보가 오피니언 면을 처음 만들기 시작한 이후 지역신문들도 2000년 이후 본격 가로쓰기와 함께 오피니언 면을 운용하기 시작했는데 2002년과 2006년, 2011년의 세 시기로 나눠 시기에 따라, 신문사별 오피니언 면 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초점을 두었다. 아울러 지역신문의 오피니언 면 운용의 문제점은 없는지와 개선점은 무엇인지도 논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지역신문 오피니언 면 필자의 인적숙성은 어떠하며 시기와 신문사 간 변화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지역신문 오피니언 면에서 여성필자의 참여는 어느 정도며 남성 필자와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지역 일간신문 오피니언 면의 필자 숙성을 알아보기 위한 이 연구에서는 2010년 11월 한국ABC협회가 발표한 전국 116개 일간지에 대한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대전·충남에서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했다.⁴⁾ 이들 세 신문의 오피니언 면을 모집단 삼아 2002년, 2006년, 2011년 등 3개년의 각 1월 한 달간을 분석기간으로 정했다. 당초 2001년부터 5년 단위로 분석하려했으나 충청투데이가 2002년 1월부터 오피니언 면을 운영하기 시작해⁵⁾ 2002년, 2006년, 2011년을 분석대상으로 했다. 세 기간을 본 이유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면변화를 보고자함인데 2002년은 오피니언 면 운용초기로 각 신문들이 한 개 지면을 오피니언 면으로 활용했으며 2006년에는 2개로 확대하며 필자의 다양화를 시

4) 한국ABC협회가 발표한 2009년 하반기 대전일보의 발행부수는 48,110부, 중도일보는 23,126부, 충청투데이는 25,797부였다. 대전일보와 중도일보가 대전충남을 발행권역으로 하는데 비해 충청투데이의 충청까지를 포함한 발행부수다.

5) 충청투데이의 '대전매일'로 발행되다가 2005년 1월 1일 충청투데이로 제호를 변경했다. 이런 이유로 2002년 1월분 충청투데이 제호는 '대전매일'이다.

도한 시기다. 최근인 2011년은 신문산업의 급속한 위축으로 오피니언 면의 부실이 드러나는 때다. 이들 세 신문은 보통 1월과 7월 두 차례 필진을 교체하는데 7월 필진교체는 다소 유동적이나 새해가 시작하는 1월에는 신년호와 함께 폭넓은 필진교체가 이뤄지는 시기여서 1월을 분석기간으로 삼았다. 또 각 코너별로 다양한 칼럼 필자들은 매주 연재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격주, 월 1회 연재하는 경우도 있어 1월 신문 한 달치를 살펴봤다. 외부 오피니언 필자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신문사 내부 필자가 쓴 기명, 무기명 칼럼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신문 내용분석에 적용한 주요변인은 선행연구를 기초했으며 이 연구의 목적과 지역신문의 특성에 맞게 분석항목을 적절히 수정했다. 변인의 개념과 조작적 정의는 <표1>과 같다.

<표 1> 주요변인의 정의와 측정

분류	변인	내 용
오피니언 면	오피니언 면	사실을 제외한, 의견과 주장이 담긴 칼럼을 상자 형으로 편집하여 실는 지면.
	기명칼럼	필자의 이름을 밝힌 칼럼. 칼럼 제목에 이름이 들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공히 기명칼럼으로 간주. 단, 직무에 따라 당연히 맞는 칼럼은 제외.
필자의 인적속성	성별	남-녀-미상으로 구분. 사진이 없는 경우, 필자의 인적정보와 칼럼 내용에서 성별이 확인되지 않으면 미상으로 코딩. 미상은 실제분석에서 제외.
	직업	이재경(2000)의 직업분류와 박선이 외(2010)의 논문을 적용하되 표본 수가 적은 직업군은 통합해서 적절하게 수정. 교수, 연구원, 전·현직 정치인/관료/공무원, 전직 언론인, 문화예술인(작가, 기고가 포함), 기업인/기업단체, 시민운동가/단체, 법조인/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학생/교사 등 학교관련인사, 기타 등 10개로 구분. 단, 교수를 겸하는 경우는 교수로 분류.
칼럼속성	주제	이재경(2000)의 주제분류를 바탕으로 박선이 외(2010)를 참고해 분류. 최종적으로 정치/지방자치, 경제/산업/에너지, 문화/예술/종교/스포츠, 보건/복지/노동, 교육/입시/아동/보육/청소년, 여성/여권, 환경, 과학/기술, 일상 등 9가지로 분류.
	종류	허버트(Herbert, 2000)의 칼럼 종류를 바탕으로 한국 특성에 맞게 수정. ① 현안논평 칼럼: 칼럼 게재 일주일 이내에 일어난 사건이나 주요 이슈에 대한 즉각적 해설 혹은 의견, 주장을 담은 칼럼. 속보성, 전문성에서 저널리즘 성격에 가장 부합. ② 전문가 의견 칼럼: 특정 이슈에 대한 전문가적 견해와 정책대안을 담은 칼럼. 현안 논평 칼럼에 비해 속보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주요 이슈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점에서 중요. ③ 비전문가 의견 칼럼: 현안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필자의 주관적 주장이 우선. ④ 교양지식 전달 칼럼: 현안과 느슨한 관련을 맺고 있으나 시사 논평보다 교양과 엔터테인먼트를 중시. ⑤ 가십 및 기타칼럼: 시사 현안보다 유명인, 특정 사건, 일상과 관련한 뒷이야기 등을 흥미 위주로 다룬 연성 칼럼.

* 출처 : 박선이 외(2010)를 재정리.

3. 연구결과

1) 필자의 속성 및 시기-신문사간 차이 : 연구문제 1의 결과

연구문제 1은 대전일보와 중도일보, 충청투데이의 2002년과 2006년, 2011년 1월 한 달 간의 오피니언 면 칼럼을 분석해 필자의 인적속성은 어떠하며 각 시기와 신문사간 변화와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2011년 1월 대전일보와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오피니언 면 기본편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칼럼 기본편성표(2011년 1월1~31일)

구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대전	구월환 세상보기 /박석홍 세상보기	김중위 곶은소리 /김진환 곶은소리	이용우 토론통신 /종교칼럼	대일논단	금요칼럼	아침광장
	경제인칼럼	대덕포럼	논단	열린마당	데스크광장*	기고
	대일논단	열린마당	열린마당	한발춘추	전문인칼럼	
	기자수첩*	교단일기	기자수첩*	대일칼럼*	한발춘추	
	여백*	한발춘추	여백*	기자수첩*	유학생칼럼	
		여백*		여백*	여백*	
중도	월요아침	시사에세이	교육단상	목요세평	금요논단	토요일자 발행 안함
	문화초대석	중도마당	수요광장	NGO소리	중도춘추	
	경제칼럼	사이언스칼럼	중도시평*	시론	중도프리즘	
	기고	직선곡선*	기고	신목민학*	기고	
				안과박*	중도시감*	
충투	아침마당	화요일발	수요광장	목요세평	시론	토요일자 발행 안함
	투데이칼럼	기고	경제인칼럼 /독자위원칼럼	기고	기고	
	기고	투데이포럼	투데이포럼	경제인칼럼	이중기칼럼*	
	박건옥칼럼/ 변평섭칼럼	투데이춘추	기고	데스크칼럼*	기자수첩*	
	데스크칼럼*	투데이칼럼	충정로*			
	기자수첩*		그때그시절*			

*표는 신문사 내부 필진 칼럼

대전일보 칼럼은 3사 가운데 꼭지수가 가장 많고 내·외부 필진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구월환 세상보기’, ‘김중위 곶은소리’, ‘이용우 토론통신’처럼 이름을 내걸고 쓰는 칼럼은 격주로 연재되고 ‘한발춘추’와 ‘경제인칼럼’, ‘대덕포럼’등은 경제·과학·문화 분야를 4~5명의 필

진이 돌아가며 월 1회씩 쓰는 형식이다. 대전일보는 또 ‘교단일기’와 ‘한발춘추’, ‘유학생칼럼’ 등 원고지 4~5매 분량의 2단 크기 칼럼을 여러 개 게재하고 있어 짜임새 있는 오피니언 면을 보여주었고 신문사 내부 필진이 쓴 ‘기자수첩’과 ‘여백’ 등을 매일 게재했다. 또 목요일자 칼럼은 부국장급이, 금요일자 데스크광장은 부장급이 돌아가면서 썼다.

분석대상 신문 3곳 중 칼럼 수가 가장 적은 중도일보는 이름을 내세운 칼럼보다는 ‘월요일아침’과 ‘수요광장’, ‘목요세평’, ‘금요논단’ 등 요일에 맞춘 칼럼 명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름을 건 외부 고정필진 없이 4~5명의 필자들이 한 달 간격으로 돌아가며 연재했다. 또 특정 칼럼 제목을 붙이지 않은 채 ‘기고’란을 통해 시의성 있는 칼럼을 게재하는 형태를 취했다. 기자들이 취재현장에서 느낀 점을 비판적으로 쓴 ‘기자수첩’은 대전일보와 달리 기사 성격에 맞게 해당 지면에 배치했다. 타 신문과 달리 중도일보는 내부 필진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매주 연재하는 칼럼이 두 가지 있었는데 목요일자 김학용 논설위원의 ‘신목민학’과 최충식 논설위원의 ‘안과 뾰’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김학용 논설위원의 ‘신목민학’은 1999년 1월부터 13년째 선출직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고전(古典)에 빗대 감시 비판해온 지역 언론의 대표 칼럼이다. 그러나 2011년 4월 14일자 584회 <염수박선(廉隨朴線)>을 끝으로 지면에서 사라져 안타까움을 준다.⁶⁾ 이외 중도일보는 ‘중도시평’과 ‘중도시감’은 부국장급과 부장급이, ‘직선곡선’은 차장들이 돌아가며 칼럼을 썼다.

충청투데이 칼럼은 분석대상 3사 가운데 가장 특색이 없었다. ‘박견옥칼럼’과 ‘변평섭칼럼’만 격주로 이름을 달고 연재했으며 나머지 칼럼들은 특정 필자를 파악하기 어렵도록 여러 사람들이 돌려가며 쓰는 형태였다. 특히 ‘투데이칼럼’과 ‘투데이포럼’, ‘투데이춘추’는 요일과 관련 없이 게재하고 있었으며 칼럼 주제와 내용에서도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충청투데이는 3사 가운데 기고를 가장 많이 사용했는데 요일과 관계없이 기고라는 제목을 달아 자치단체장과 정치인의 글을 주로 실었다. 또 데스크와 기자들이 쓰는 고정 칼럼도 대전일보와 중도일보에 비해 적었으며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운영되지 못했다. 일테면 데스크 칼럼이 들어가는 날 기고를 대신 넣었는데 이렇게 게재된 칼럼은 ‘토끼해, 싸우지 말고 평화로 추구하자(2011년 1월 17일 20면)’처럼 고정칼럼을 빼고 넣을 만큼 시급을 다투는 사안은 아니었다. 충청투데이는 또 자사 독자위원들이 쓰는 ‘독자위원칼럼’을 운용했는데 대전현충원장이 쓴 ‘현충원장 연장 근무 인사로비(2011년 1월 5일 21면)’와 대전시치과 의사 회장이 쓴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자(2011년 1월 26일 21면)’처럼 기사와 지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자신이 속한 기관·단체를 홍보하는 내용이어서 독자위원 칼럼이란 이름을 무색하게 했다.

연구문제 1을 해결하기 위해 세 신문의 2002년, 2006년, 2011년 각 1월 한 달치 오피니언 면을 분석했다. 대전일보와 중도일보, 충청투데이는 똑같이 2002년에는 한 개 면을 오피니언으로, 2006년과 2011년은 2개 지면을 오피니언 면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각 시기별 1월 1일자부터 31일자에서 추출한 오피니언 면 칼럼은 모두 544개였다. 사설과 신문사 내부 칼럼은 제외했으며 사진과 함께 필자 이름을 밝힌 칼럼만을 분석대상에 포함했다. <표 3>은 분석대상 신문의 분석기간 평균 지면 수와 칼럼 수를 비교한 것이다.

6) 이와 관련해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11년 5월 12일 ‘중도일보의 신목민학 중단 이유를 밝혀라’는 성명을 통해 ‘신목민학’이 엄홍철 대전시장의 외압에 의해 중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바 있다.

<표 3> 분석대상 신문의 평균 지면 수와 칼럼 수

	2002년 1월			2006년 1월			2011년 1월		
	지면	4주치 칼럼	1일평균 칼럼	지면	4주치 칼럼	1일평균 칼럼	지면	4주치 칼럼	1일평균 칼럼
대전	20	58	2.2	24 (16)	71	2.7	24 (16)	78	3.1
중도	20	35	1.3	24 (16)	59	2.3	24	71	3.2
충투	20	46	1.8	24 (16)	58	2.2	24	68	3.1

* 1일 지면 수 중 ()는 토요일자 지면이며 1일 평균 칼럼 수는 4주치 칼럼 수를 발행일로 나눠 추산한 것이다. 대전일보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토요일자 지면을 발행하고 있으며 중도일보와 충청투데이의 2008년 1월 1일부터 주5일 발행하고 있어 2002년과 2006년 세 신문의 평일 발행일 수는 26일로 같고 2011년에는 대전일보가 25일, 중도일보와 충청투데이의 각각 22일이다.

2002년과 2006년, 2011년 1월 한 달치 칼럼 수를 합하면 대전일보 207건, 중도일보 165건, 충청투데이 172건이다. 대전일보가 다른 신문보다 칼럼 수가 많은 이유는 중도일보와 충청투데이의 5일 발행하는 2011년에도 토요일자 지면을 내고 있으며 한발춘추, 일터에서, 전문인 칼럼, 교단일기, 유학생칼럼 등 원고지 4~5매 분량의 칼럼이 많기 때문이다.

세 신문의 오피니언 칼럼 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대전일보는 2002년 58개 이던 것이 2006년에는 71개, 2011년에는 78개로 늘었다. 중도일보는 2002년 35개에서 2006년 59개, 2011년 71개였으며 충청투데이의 2002년 46개에서 2006년 58개, 2011년 68개다. 똑같이 2개 지면을 오피니언 면으로 운용한 2006년과 2011년만 비교할 때 대전일보의 칼럼 수는 9.9% 증가했고 중도일보는 이보다 많은 20.3% 늘었다. 또 충청투데이의 17.2% 증가했다. 그러나 2002년 한 개 면을 운용할 때 칼럼 수보다 2개 지면을 운용할 때 칼럼 수가 배로 늘지는 않았는데 이는 오피니언 면을 2개로 확대하면서 다른 지면에 있던 사설을 오피니언 면으로 옮겨왔기 때문이다.

1일 평균 칼럼 수에서도 세 신문은 차이를 드러냈는데 2002년에는 대전일보가 하루 2.2건으로 중도일보(1.3건)와 충청투데이(1.8건)보다 많았고 이는 2006년에도 이어져 대전일보는 하루 2.7건을 중도일보는 2.3건, 충청투데이의 2.2건의 외부칼럼을 실었다. 그러나 2011년에는 중도일보가 하루 3.2건으로 대폭 늘었고 대전일보와 충청투데이의 3.1건으로 같았다. 이처럼 1일평균칼럼 수가 2~3건인 이유는 외부필진 칼럼만을 분석했기 때문이다. 또 2002년과 2006년에 비해 2011년 칼럼 수가 늘어난 것은 세 신문들이 내부보다 외부칼럼의 비중을 높이고 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2002년 조선일보의 사내필자 칼럼이 66%, 사외칼럼이 34%였고 동아일보의 사외필자 칼럼이 53%, 사내칼럼이 47%(배인준, 2002)인 것과 비교하면 대전일보와 중도일보, 충청투데이의 사내칼럼은 중앙지에 비해 수적으로 미흡하다. 기사가 점점 평준화되어 가는 속에서 칼럼은 각 신문의 차별성을 독자에게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신문의 색깔을 분명하게 해줘 신문마다 필력과 전문성을 갖춘 내부 필자를 양성하는데 주력(류근일, 2009)하는 점에서 대전일보와 중도일보, 충청투데이의 내부칼럼이 줄어드는 현상은 신문의 차별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는 분석대상 3개 신문 오피니언 칼럼 필자의 직업을 2002년, 2006년, 2011년의

로 나눠 살펴본 것이다.

<표 4> 세 신문의 시기별 필자 직업변화 [단위:% (칼럼수)]

신문	시기(년)	교수	연구원	전직 언론인	전현직 정치인/관료/공무원	기업인/기업단체	시민운동가/단체	전문직(법조인/변호사/의사)	학교(학생/교사)	문화예술인	전체
대전일보	2002	17.3	3.4	12.1	0	20.7	5.2	1.7	22.4	17.2	100(58)
	2006	33.8	4.2	0	15.5	14.1	9.9	5.6	9.9	7.0	100(71)
	2011	19.2	6.4	6.4	24.4	12.8	1.3	7.7	12.8	9.0	100(78)
	평균	23.4	4.7	6.2	13.3	15.9	5.5	5.0	15.0	11.1	100(207)
중도일보	2002	45.7	8.6	0	5.7	20.0	0	2.9	11.4	5.7	100(35)
	2006	18.6	6.8	3.4	16.9	10.2	6.8	22.0	10.2	5.1	100(59)
	2011	35.2	7.0	2.8	16.9	8.5	8.5	8.5	7.0	5.6	100(71)
	평균	33.2	7.5	2.1	13.2	12.9	5.1	11.1	9.5	5.5	100(165)
충청투데이	2002	54.3	0	0	17.4	8.7	10.9	8.7	0	0	100(46)
	2006	17.3	5.2	0	27.6	13.8	10.3	13.8	1.7	10.3	100(58)
	2011	17.6	1.5	0	30.9	23.5	2.9	11.8	4.4	7.4	100(68)
	평균	29.7	2.2	0	25.3	15.3	8.0	11.4	2.0	5.9	100(172)

세 신문 모두 교수에게 오피니언 칼럼을 가장 많이 맡겼는데 이는 굵직한 사회현안이나 정치문제에 있어 대학의 관련학과 교수들의 전문 의견을 반영하는 오피니언 면의 특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전일보의 교수 필자가 23.4%, 충청투데이가 29.7%인데 비해 중도일보는 33.2%로 세 신문 가운데 교수 필진이 가장 많았다.

교수 다음으로 많은 직업군은 전·현직 정치인/관료/공무원이었는데 여기에는 정치인보다 공무원이 많았으며 대전일보가 13.3%, 중도일보가 13.2%인데 비해 충청투데이는 25.3%로 다른 두 신문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정치인/공무원 직군에는 대전·충남 시도지사과 구청장, 시도 의회의원 등 선출직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특허청, 산림청, 조달청 등 정부기관의 장과 대전시와 충남도 실국장도 있었다. 이는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이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대전일보와 중도일보, 충청투데이에 실린 외부칼럼 필진을 직군별로 분류한 것과는 비슷한데 정치인과 공무원 필진이 대전일보는 12.2%, 중도일보는 17.4%, 충청투데이는 20.2%로 역시 충청투데이가 다른 신문들에 비해 높았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주 광고주이면서 주 독자층이고 신문사 주최 각종 행사의 협찬자이자 후원자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움 없이 지역사회에서 지역신문이 살아남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신문사의 주요 필진이라는 사실은 여러모로 암시하는 바가 크다(대전충남민언련, 2011).

세번째로 많은 직업군은 기업인/기업단체였는데 대전일보가 15.9%로 가장 높았고 충청투데이가 15.3%, 중도일보는 12.9%였다. 기업인과 기업단체 가운데서는 단체보다 기업인이 많았다. 또 이들의 칼럼은 매주, 혹은 격주 등 일정 기간과 주제를 두고 연재되기 보다는 '기고'형식을 통해 실렸다. 기업인은 지역 건설업체를 비롯해 은행, 유통업체가 주였는데 이들 역시 지역신문의 대표적 광고주다. 지역신문이 감시 비판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기관, 지역기업들을 오피니언 필진으로 포진시키고 있는 것은 신문사의 노림수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대전충남민언련, 2011).

대전일보 필진에는 학교(교사/학생)관련 인물이 10.0%로 다른 신문보다 많았는데 이는 '교단일기'와 '유학생칼럼'등 교사와 대학생들이 월 1회씩 쓰는 미니 칼럼 때문이다. 충청투데이의 시민운동가와 시민단체 칼럼 비율이 8.0%로 대전일보(5.5%)와 중도일보(5.1%)보다 높았다.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위치해 대전이 과학도시로 알려진데 비해 세 신문 모두 연구원 등 과학기술관련 필자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연구원 필진은 중도일보가 7.5%로 대전일보(4.7%)와 충청투데이(2.2)보다 높았지만 공무원과 기업인 필진이 10~20%대 인 것에 비하면 대단히 열악했다. 이는 지역신문이 지역적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독자 확보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시기적 분류에서 대전일보는 오피니언 면 운용초기인 2002년 전·현직 정치인과 관련, 공무원 필진이 한명도 없던 데서 2006년 15.5%로 늘어난 뒤 2011년에는 24.4%로 대폭 늘었다. 반면 학교 교사와 대학생이 쓰는 칼럼 비중은 2002년 22.4%에서 2011년에는 절반 가까이(12.8%)로 줄었다. 대전일보 필진의 직업군 가운데 가장 취약한 부분은 시민운동가와 시민단체였는데 2011년에는 1.3%로 전체 직업군 가운데 가장 적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중도일보 필진은 교수가 단연 우세했다. 중도일보는 2002년 절반에 가까운 45.7%의 필진을 교수로 운용했으며 2011년에도 35.2%가 교수집단이었다. 그러나 2006년에는 18.6%로 낮아져 중도일보가 정책적으로 교수필진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특히 이들 교수 칼럼은 각 신문마다 중복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2006년 1월 충청투데이에 '투데이포럼'을 쓴 김선중 우송대총장은 2008년 하반기 중도일보 '목요세평' 필진이었다. 또 중도일보의 2011년 '목요세평' 필진인 김희수 건양대총장은 2006년 1월에는 대전일보에 기고를 연재했다. 2011년 1월 대전일보의 '대일논단'을 쓰는 김억중 한남대교수는 2008년 상반기 중도일보 '중도춘추' 필진이었고 2006년 1월 대전일보에 '아침광장'을 연재한 한승동 충주대 석좌교수는 2010년 하반기에는 중도일보에 '목요세평'을 월 1회 연재했다. 칼럼은 신문의 논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를 통해 신문사 간 차이와 특색이 드러나는데 신문의 지향성에 관계없이 같은 교수를 신문마다 돌려가며 필진으로 기용하는 것은 신문의 특색을 사라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 특히 오피니언 면 전체 필진 가운데 교수 비중이 높은 속에서 각 대학 총장들이 필진에 포함돼 대학홍보를 하는 모습은 정치문제와 지역현안에 대해 전문지식인인 교수들의 의견을 독자에게 제시한다는 오피니언 면의 운용 취지와도 맞지 않는 일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

충청투데이도 중보일보와 마찬가지로 2002년 교수 필진이 54.3%로 절반을 넘었으나 2006년과 2011년에는 17%로 줄었다. 그러나 전·현직 정치인과 공무원 필진은 3사 가운데

가장 많아 2011년에는 30.9%로 오피니언 칼럼이 공무원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충청투데이의 정치인과 공무원 필진을 살펴보면 대전시장, 대전시의회 의장, 충북도 부지사, 충남도의회 의원, 유성구의회 의장, 부여군수, 국립대전현충원장,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장, 금강유역환경청장, 계룡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등이었는데 선출직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정부기관 및 대전시와 충남도 산하 기관의 장이었다. 이들이 쓰는 칼럼 내용은 해당 기관을 소개하거나 정책홍보에 그쳐 사회현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오피니언 면의 특성과 맞지 않았다.

<표 5>는 분석대상 세 신문의 시기별 칼럼 종류다.

<표 5> 세 신문의 시기별 칼럼 종류 [단위:% (칼럼수)]

신문	시기 (년)	현안논평	전문가 의견	비전문가 의견	교양지식 전달	가십 및 기타	전체
대전일보	2002	3.4	8.6	34.5	32.8	20.7	100 (58)
	2006	9.9	26.8	22.5	15.5	25.4	100 (71)
	2011	15.4	16.7	28.2	30.8	9.0	100 (78)
	평균	10.1	17.9	28.0	26.1	17.9	100 (207)
충도일보	2002	5.7	0	42.9	37.1	14.3	100 (35)
	2006	10.2	1.7	39.0	37.3	11.9	100 (59)
	2011	26.8	5.6	33.8	28.2	5.6	100 (71)
	평균	16.4	3.0	37.6	33.3	9.7	100 (165)
충청투데이	2002	8.7	17.4	32.6	34.8	6.5	100 (46)
	2006	3.4	6.9	44.8	39.7	5.2	100 (58)
	2011	19.1	10.3	32.4	29.4	8.8	100 (68)
	평균	11.0	11.0	36.6	34.3	7.0	100 (172)

허버트(Herbert, 2000)의 칼럼종류를 한국 특성에 맞게 수정해 오피니언 면 칼럼들을 현안논평 칼럼과 전문가의견 칼럼, 비전문가 의견 칼럼, 교양지식 전달 칼럼, 가십 및 기타칼럼으로 분류했다. 현안논평 칼럼은 칼럼 게재 일주일 이내에 일어난 사건이나 주요 이슈에 대한 즉각적 해설 혹은 의견, 주장을 담은 칼럼으로 속보성·전문성에서 저널리즘 성격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문가의견 칼럼은 특정이슈에 대한 전문가적 견해와 정책대안을 담은 칼럼으로 현안논평 칼럼에 비해 속보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주요이슈를 직접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비전문가 의견 칼럼은 현안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기보다

필자의 주관적 주장이 우선시한 것이며 교양지식 전달 칼럼은 현안과 느슨한 관련을 맺고 있으나 시사 논평보다 교양과 엔터테인먼트를 중시하는 것이다. 가십 및 기타칼럼은 시사 현안보다 유명인, 특정사건, 일상과 관련한 뒷이야기 등을 흥미위주로 다룬 연성칼럼이다.

3개 신문 오피니언 칼럼은 현안논평과 전문가의견보다는 비전문가 의견과 교양지식 전달 칼럼이 대부분이었다. 대전일보의 현안논평이 10.1%, 전문가 의견 17.9%, 비전문가 의견 28.0%, 교양지식 전달 26.1%, 가십 및 기타 17.9%였다. 중도일보는 현안논평 16.4%, 전문가 의견 3.0%, 비전문가 의견 37.6%, 교양지식 전달 33.3%, 가십 및 기타 9.7%였으며 충청투데이의 현안논평 11.0%, 전문가 의견 11.0%, 비전문가 의견 36.6%, 교양지식 전달 34.3%, 가십 및 기타칼럼 7.0%였다. 이처럼 비전문가 의견과 교양지식 전달 칼럼이 많은 이유는 필자의 직업에서 기인하는데 지역신문 필진의 주류인 정치인, 공무원, 기업인이 자신의 기관 단체를 홍보하는 칼럼을 주로 썼기 때문이다. 교수필진 가운데도 2011년 들어서는 대학총장 비중이 특히 높아졌는데 이들은 일방적인 학교홍보를 칼럼 소재로 삼았다. 또한 단순한 교양지식 전달과 연성주제를 다룬 가십성 칼럼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시기별로 봤을 때 2011년에는 현안논평과 전문가의견 칼럼이 늘었다. 이는 2011년 연초 정치권 및 교육계의 최대화두가 무상급식 문제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칼럼을 많이 게재했기 때문이다.

<표 6>은 세 신문의 칼럼 주제를 살펴본 것이다.

<표 6> 세 신문의 칼럼 주제 [단위:% (칼럼수)]

신문	시기 (년)	정치/ 지방 자치	경제/ 산업	문화/예 술/종교 /스포츠	보건/ 복지/ 노동	교육/ 아동/ 청소년	여성/ 여권	환경	과학/ 기술	일상	전체
대전 일보	2002	12.1	17.2	8.6	3.4	17.2	0	5.2	3.4	32.8	100 (58)
	2006	18.3	18.3	12.7	8.5	11.3	2.8	2.8	4.2	21.1	100 (71)
	2011	24.4	12.8	17.9	6.4	12.8	0	5.1	5.1	15.4	100 (78)
	평균	18.8	15.9	13.5	6.3	13.5	1.0	4.3	4.3	22.2	100 (207)
중도 일보	2002	17.1	17.1	14.3	0	17.1	0	0	11.4	22.9	100 (35)
	2006	6.8	6.8	16.9	10.2	11.9	0	5.1	15.3	27.1	100 (59)
	2011	19.7	14.1	11.3%	14.1	15.5	0	7.0	4.2	14.1	100 (71)
	평균	14.5	12.1	13.9	9.7	14.5	0	4.8	9.7	20.6	100 (165)
충청 투데 이	2002	32.6	15.2	4.3	4.3	30.4	2.2	2.2	0	8.7	100 (46)
	2006	19.0	19.0	12.1	12.1	10.3	1.7	6.9	5.2	13.8	100 (58)
	2011	27.9	13.2	7.4	13.2	7.4	0	5.9	4.4	20.6	100 (68)
	평균	26.2	15.7	8.1	10.5	14.5	1.2	5.2	3.5	15.1	100 (172)

분석대상 3개신문의 오피니언 면 칼럼을 ①정치/지방자치 ②경제/산업/에너지 ③문화/예술/종교/스포츠 ④보건/복지/노동 ⑤교육/입시/아동/보육/청소년 ⑥여성/여권 ⑦환경 ⑧과학/기술 ⑨일상 등 9가지로 분류했다.

세 신문 칼럼은 일상생활과 신변잡기를 다룬 연성소재가 주였고 정치와 지방자치, 교육, 문화가 뒤를 이었다. 대전일보의 일상칼럼은 22.2%, 중도일보는 20.6%, 충청투데이는 15.1%였다. 대전일보의 정치/지방자치 주제는 18.8%, 중도일보 14.5%, 충청투데이 26.2%로 충청투데이가 다른 신문들보다 정치/지방자치를 주제로 한 칼럼이 많았는데 이는 충청투데이에 전·현직 정치인/공무원 필진이 많은데 기인한다. 칼럼 소재는 필자의 직업과 연관이 컸는데 대부분의 필자가 자신의 소속과 직업과 관련한 칼럼을 썼다. 그러다보니 기업인이 쓴 경제칼럼, 문화예술인이 쓴 문화예술 칼럼, 교장과 교사들이 쓴 교육칼럼도 많았다.

하지만 여성과 여권 관련한 칼럼은 거의 전무해 칼럼 소재의 편중현상이 심각했다. 대전일보는 여성관련 칼럼이 1%였고 중도일보는 0%, 충청투데이는 1.2%였다. 여성소재 칼럼이 적은 이유는 필진의 대부분이 남성인 영향도 있는데 이 문제는 연구문제 2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시민사회단체 필진이 부족하다보니 환경관련 칼럼도 부족했는데 대전일보가 4.3%, 중도일보가 4.8%, 충청투데이가 5.2%에 불과했다.

칼럼소재는 신문사와 시기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사 모두 여성/여권, 환경, 과학/기술소재 칼럼이 부족했고 일상생활과 신변잡기 중심의 연성칼럼이 주였다. 칼럼은 독자에게 주는 영향력이 강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종류와 내용 또한 다양한 것이 독자에 대한 서비스다(이형, 1991). 이런 점에서 대전·충청지역 대표신문인 대전일보와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칼럼이 여성, 환경, 과학부문에 취약하다는 것은 신문의 다양성과 전문성, 심층성 부문에 결함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2) 여성필자의 참여 : 연구문제 2의 결과

연구문제 2는 지역신문 오피니언 면에서 여성필자의 참여는 어느 정도며 이들은 어떤 글을 쓰고 남성 필자와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오피니언 면이 압도적으로 남성필자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은 주로 언론 현장의 여성들(Awan, 2005; Mundy, 2002)이며 학문적 연구로는 아직 발전하지 않은 듯하다(박선이 외, 2010). 젠더의식이 결핍된 여성보도는 가부장적 질서를 옹호하고 사회의 성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우려를 낳는다(김선남, 2003; 김훈순, 2004; 양정혜, 2002; 유선영, 2003).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전·충청지역 대표 지역신문들이 오피니언 면을 통해 사회의 성차별 구조를 어떻게 일상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는지를 알아봤다. 오피니언 칼럼의 필자들이 사회 주요부문의 의견지도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속에서 여성이 얼마나 재현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상징화되는지를 살펴보는데 초점을 뒀다.

<표 7>은 분석대상 3개 신문의 남녀 오피니언 필자 수다.

<표 7> 남녀 오피니언 필자 수 [단위:명 (%)]

신문	성별	2002년	2006년	2011년
대전일보	남	51(87.9)	55(77.5)	71(91.1)
	여	7(12.1)	16(22.5)	7(8.9)
	합계	58(100.0)	71(100.0)	78(100.0)

중도일보	남	33(94.3)	50(84.7)	65(91.5)
	여	2(5.7)	9(15.3)	6(8.5)
	합계	35(100.0)	59(100.0)	71(100.0)
충청투데이	남	45(97.8)	54(93.1)	66(97.1)
	여	1(2.2)	4(6.9)	2(2.9)
	합계	46(100.0)	58(100.0)	68(100.0)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의 여성필자 수는 대단히 취약했다. 3개 신문이 2002년, 2006년, 2011년 운용한 여성필자 평균은 9.4%였다. 대전일보는 2002년 58명의 필자 가운데 여성이 7명(12.1%)에 불과했고 2006년 22.5%로 느는가 싶더니 2011년 8.9%로 다시 하락했다. 중도일보 역시 2002년 전체필진 중 여성이 5.7%이던 데서 2006년 15.3%로 늘었다가 2011년 8.5%로 떨어졌다. 충청투데이는 3개 신문 가운데 여성 필자가 가장 적었는데 2002년 2.2%, 2006년 6.9%, 2011년 2.9%였다. 분석 샘플이 된 544명의 필자 중 여성은 54명(9.9%)으로 10%가 채 되지 않았다. 3개 신문 가운데서는 대전일보의 여성 필진이 30명(14.5%)으로 다른 신문에 비해 다소 많았으며 충청투데이는 7명으로 4.1%에 그쳤다. 시기적으로는 오피니언 면 운용초기인 2002년보다 2006년에 상승한 모습을 보였으나 2011년 다시 하락해 분석대상 신문들은 정책적으로 여성필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3개 신문 모두 2006년에 여성필진이 잠시 늘어난 이유는 2002년 1개 지면을 오피니언 면으로 운영하던 데서 2006년 2개 면으로 확대하면서 여성 필자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3개 신문의 여성필자 비율은 선행연구들과도 차이를 보였다. 선행연구의 여성필자 비율은 이재경(2000) 12.2%, 양승혜·강혜주(2007) 14.8%, 권장원 외(2007) 10.2%로 대전·충청 지역신문들의 여성필자비율 9.9%보다 높았다. 최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의 오피니언 칼럼의 젠더특성을 분석한 박선이 외(2010) 연구에서의 평균 여성필자 칼럼 비율 9.9%와는 같은 수치다. 오피니언 면이 확대되고 여성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피니언 면 여성필자는 여전히 10% 안팎에 불과해 남성과의 큰 성비 불균형이 드러났다. 이처럼 여성필자가 많지 않은 이유는 첫째, 여성필자 자원이 많지 않다는 점, 둘째 여성필자에게 제한된 분야와 주제의 칼럼을 기대하는 제작관행, 그리고 여성 필자를 새로 발굴하려는 노력의 부족 때문이다(박선이 외, 2010).

<표 8>은 성별에 따른 필자의 직업분류다.

<표 8> 성별에 따른 필자의 직업 [단위:% (칼럼수)]

성별	교수	연구원	전직 언론인	전현직 정치인/관료/공무원	기업인/기업단체	시민운동가/단체	전문직(법조인/변호사/의사)	학교(학생/교사)	문화예술인	전체
남	31.1	4.5	3.1	18.6	15.2	4.5	9.7	7.1	6.2	100 (490)
여	5.6	3.9	0	8.3	5.7	27.5	7.8	18.6	22.6	100 (54)

성별에 따른 필자의 직업분류를 보면 남성필자는 교수가 31.3%로 가장 많고 다음이 전·현직 정치인과 공무원(18.6%), 기업인/기업단체(15.2%) 순이었다. 이와 달리 여성은 시민운동가/시민단체가 2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문화예술인(22.6%), 학교(학생/교사) 순이었다. 교수필자의 비율은 남성에 상대적으로 적은 5.6%에 불과했으며 전직 언론인은 전혀 없었고 정치인과 공무원 비율도 남성의 3분의 1에 그쳤다.

여성필자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중·고교 교사, 시민단체 활동가, 갤러리 관장, 시인, 수필가, 은행원, 대학생이 주류를 이뤄 직업면에서의 다양성이 부족했다. 또 우리사회 의견지도자보다는 학교와 은행 등 소속 기관단체를 홍보하거나 일상의 이야기를 전하는 수준이었다.

전직 언론인 필자 중 여성이 한명도 없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20년 우리나라 최초의 여기자 이각경(매일신보)기자 이후 언론계에 여기자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조선일보의 경우 2004년 기자직 수습공채에서 남성 4명, 여성 5명이 합격했으며 경향신문은 2005년 기자직 수습공채에서 남성 3명, 여성 7명이, 중앙일보는 2007년 기자직 수습공채에서 남성 3명, 여성 6명이 합격하는 등 언론계에도 ‘여초(女超)’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송상근, 2008).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2008한국신문방송연감에 따르면 각 언론사의 뉴스룸에 소속된 여성의 비율은 33%를 넘어섰으며 주요언론사에서도 여직자가 15%를 넘는 곳이 절반을 웃돈다(홍은희, 2010). 그러나 이러한 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직자들은 부서 배치와 승진에서의 장벽을 언론사 생활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고 있어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간부 배치와 양성평등적인 보도, 여성관련 보도 가이드라인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강미은, 2007). 전통적으로 남성문화가 강한 것으로 평가돼 온 언론사 조직에서 여직자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여성 언론인 간부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 오피니언 지면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9>는 분석대상 3개 신문의 시기별 여성필자 직업분류다.

<표 9> 신문과 시기별 여성필자 직업 [단위:% (칼럼수)]

신문	연도	교수	연구원	전직 언론인	전현직 정치인/관료/공무원	기업인/기업단체	시민운동가/단체	전문직(법조인/변호사/의사)	학교(학생/교사)	문화예술인	전체
대전일보	2002						14.2		42.9	42.9	100(7)
	2006		12.5			12.5	25.0	6.3	31.2	12.5	100(16)
	2011	14.3					14.3	14.3	42.8	14.3	100(7)
	평균	4.8	4.2	0	0	4.2	17.8	6.9	39.0	23.2	100(30)
중도일보	2002									100	100(2)
	2006	11.1	22.2			22.2	11.1		33.4		100(9)
	2011					16.7	33.3		16.7	33.3	100(6)
	평균	3.7	7.4	0	0	13.0	14.8	0	16.7	44.4	100(17)

충청투데이	2002					100				100 (1)
	2006	25.0			25.0	50.0				100 (4)
	2011				50.0		50.0			100 (2)
	평균	8.3	0	0	25.0	0	50.0	16.7	0	0

대전일보 여성필자는 39.0%가 학교 인물이었다. 대전일보는 ‘교단일기’ 칼럼을 운용하는데 여기에는 초·중·고 교사가 필진이 되며 대부분이 여교사다. 또 문화예술인과 시민운동가에도 여성 비율이 높았다. 전직 언론인과 정치인/공무원 여성은 한명도 없었다.

중도일보 여성필진은 문화예술인이 44.4%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다음이 교사/학생(16.7%), 시민운동가/시민단체(14.8%)였다. 다른 신문에 비해 중도일보는 기업인/기업단체 여성필자가 13.0%였는데 여기에는 기업의 CEO보다 은행원이 다수로 금융관련 상식을 전하는 수준이었다. 대전일보와 마찬가지로 전직 언론인과 정치인/공무원 여성필자는 없었다. 여성 필자가 다른 두 신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충청투데이도 다른 신문과 달리 정치인과 공무원이 25%를 차지했고 시민운동가도 50%였다. 반면 학교와 문화예술인은 전혀 없었다. 충청투데이 정치인 여성필진은 선출직 충남도의회 의원이었다.

여성필자의 직업분류를 보면 남성보다 훨씬 쏠림현상이 심각했는데 교수비율이 낮은 것은 물론 전직 언론인이 전혀 없고 연구원과 정치인/공무원, 기업인/기업단체, 전문직 비중이 남성들에 비해 월등히 낮아 여성필자의 수적 증가 못지않게 다양한 여성들이 오피니언 면 칼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자 발굴 노력이 시급함을 보여줬다.

<표 10>은 성별에 따른 칼럼의 종류다.

<표 10> 성별에 따른 칼럼 종류 [단위:% (칼럼수)]

	현안논평	전문가 의견	비전문가 의견	교양지식 전달	가십 및 기타	전체
남	12.7	11.6	36.1	29.6	10.0	100 (490)
여	9.3	7.4	11.1	42.6	29.6	100 (54)

남성필자들이 현안논평과 전문가 의견, 비전문가 의견 칼럼을 게재하는데 비해 여성필진 칼럼은 교양지식 전달(42.6%)과 가십 및 기타(29.6%)에 집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피니언 칼럼에서 여성필자는 당면한 사회현안이나 지역이슈를 신속하게 다루는 현안논평 칼럼이나 합리적 원인규명과 정책 대안 제시에 주력하는 전문가 칼럼보다 교양지식 전달과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가십이나 기타 연성소재 칼럼을 더 많이 게재했다. 이는 칼럼이 신문의 차별성을 부각 시킨다는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으며 ‘여성필자=일상 소재 글’이라는 이미지를 고착화 시킬 우려가 있다.

<표 11>은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여성필자의 시기별 칼럼 종류를 살펴본 것인

데 현안논평과 전문가의견, 비전문가 의견 등 칼럼 종류에서 신문사별, 시기별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써 지역신문들은 어느 분야의 여성필자를 얼마나 지면에 반영할지를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지면을 편성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표 11> 세 신문 여성필자의 시기별 칼럼 종류 [단위:% (칼럼수)]

신문	시기 (년)	현안논평	전문가 의견	비전문가 의견	교양지식 전달	가십 및 기타	전체
대전일보	2002	14.3	14.3	0	42.9	28.6	100 (7)
	2006	6.3	0	12.5	25.0	56.3	100 (16)
	2011	0	0	14.3	57.1	28.6	100 (7)
	평균	6.7	3.3	10.0	36.7	43.3	100 (30)
중도일보	2002	0	0	0	100.0	0	100 (2)
	2006	0	0	33.3	44.4	22.2	100 (9)
	2011	33.3	33.3	0	33.3	0	100 (6)
	평균	11.8	11.8	17.6	47.1	11.8	100 (17)
충청투데이	2002	100.0	0	0	0	0	100 (1)
	2006	0	25.0	0	75.0	0	100 (4)
	2011	0	0	0	50.0	50.0	100 (2)
	평균	14.3	14.3	0	57.1	14.3	100 (7)

대전일보 칼럼의 36.7%가 교양지식 전달, 43.3%가 가십 및 기타였으며 중도일보는 절반에 가까운 47.1%가, 충청투데이는 57.1%가 교양지식 전달 칼럼이었다. 대전일보는 칼럼 수에 비해 현안논평과 전문가의견 칼럼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이는 대전일보 여성칼럼의 39%가 교사들이 쓴 것이어서 학교생활과 학생들에 대한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주 소재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오피니언 칼럼에서 여성필자는 사회가 당면한 공공의제를 신속하게 다루는 현안논평 칼럼이나 합리적 원인규명과 정책대안제시에 주력하는 전문가 칼럼보다 단순히 개인 의견을 피력하는 비전문가 칼럼을 더 많이 게재한다는 특징은 선행연구(박선이 외, 2010)와 같았는데 이는 뉴스보도에서 여성 기자의 취재 영역이 사적이고 비공식적인 분야에 편중됐다는 선행연구들(이재경, 2000; 양승혜·강혜주, 2007; 권장원 외, 2007)과도 닮은꼴이다. 이런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여성을 일반적 읽을거리의 필자로 기용하는 제자관행이 오피니언 면에서 여성의 상징적 소멸을 구축하는데 일정한 몫을 차지한다는 점이다(박선이 외, 2010).

<표 12>는 세 신문의 남녀 필진별 칼럼주제를 비교한 것이다.

<표 12> 남녀 필진별 칼럼 주제 [단위:% (칼럼수)]

시기 (년)	정치/ 지방 자치	경제/ 산업	문화/예 술/종교 /스포츠	보건/ 복지/ 노동	교육/ 아동/ 청소년	여성/ 여권	환경	과학/ 기술	일상	전체
남	21.2	15.3	11.0	9.2	13.7	0.2	5.1	6.1	18.2	100 (490)
여	7.4	9.3	20.4	3.7	18.5	5.6	1.9	1.9	31.5	100 (54)

남성필자의 21.2%가 정치/지방자치를 주제로 칼럼을 게재한데 비해 여성필자는 31.5%가 일상을 소재로 한 칼럼을 많이 썼다. 또 문화/예술/종교/스포츠 관련 주제도 20.4%나 됐다. 여성필자의 경제/산업칼럼은 9.3%로 남성(15.3%)에 비해 부족했으며 환경과 과학/기술칼럼도 남성들이 더 많이 썼다. 여성필자의 칼럼은 일상과 문화예술, 교육에 지나치게 편중된 경향을 보이며 나머지 주제에서는 부진했다. 특히 남성필자가 여성과 여권에 대한 칼럼을 게재한 경우는 1%가 안됐으나 여성필자는 5.6%를 써 여성이 말하는 여성의 문제와 여권이 라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 표를 통해 지역신문 오피니언 면 칼럼 여성필진들의 칼럼주제 다 각화와 지역현안과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폭넓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3>은 세 신문의 시기별 여성칼럼 주제를 비교한 것이다. 여성칼럼의 숫자가 적고 주제자체도 교육과 일상으로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세 신문의 칼럼 주제 [단위:% (칼럼수)]

신문	시기 (년)	정치/ 지방자 치	경제/ 산업	문화/예 술/종교 /스포츠	보건/ 복지/ 노동	교육/ 아동/ 청소년	여성/ 여권	환경	과학/ 기술	일상	전체
대전 일보	2002	0	14.3	42.9	0	0	0	0	0	42.9	100 (7)
	2006	6.3	6.3	6.3	0	25.0	12.5	0	0	43.8	100 (16)
	2011	0	14.3	0	0	42.9	0	0	0	42.9	100 (7)
	평균	3.3	10.0	13.3	0	23.3	6.7	0	0	43.3	100 (30)
충도 일보	2002	0	0	100.0	0	0	0	0	0	0	100 (2)
	2006	0	11.1	22.2	11.1	11.1	0	0	11.1	33.3	100 (9)
	2011	16.7	16.7	33.3	0	16.7	0	16.7	0	0	100 (6)
	평균	5.9	11.8	35.3	5.9	11.8	0	5.9	5.9	17.6	100 (17)

충청투데이	2002	100.0	0	0	0	0	0	0	0	0	100 (1)
	2006	0	0	25.0	25.0	25.0	25.0	0	0	0	100 (4)
	2011	50.0	0	0	0	0	0	0	0	50.0	100 (2)
	평균	28.6	0	14.3	14.3	14.3	14.3	0	0	14.3	100 (7)

칼럼소재 편중현상은 대전일보가 일상 43.3%, 교육/아동/청소년 23.3%로 가장 심각했는데 이는 대전일보 여성필자의 39%가 여교사와 여학생인데서 비롯된 것이다. 학교현장에 여교사가 많다는 이유로 ‘교단일기’등 학교칼럼 필진을 여교사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도 개선되어야 하며 여교사들도 칼럼주제를 환경과 과학, 보건, 복지 등 다양한 주제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대전일보보다 여성필자 칼럼 수는 적지만 그나마 중도일보 여성필자들은 각 분야 소재를 두루 칼럼에 반영했다. 하지만 문화예술 소재가 35.3%를 차지했고 여성과 여권 관련 칼럼은 한 건도 없었다. 충청투데이 칼럼은 문화와 교육소재 쏠림현상은 적었으나 많지 않은 여성필자가 충남도의회 의원이어서 정치주제 칼럼이 많았다. 이 역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다. 칼럼의 다양한 주제 가운데 대전일보 여성필자에게서는 보건/복지/노동, 환경, 과학기술 주제가 전혀 없었고 중도일보도 여성/여권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충청투데이의 환경, 과학기술과 함께 여성생활과 관련이 깊은 경제 칼럼이 한 건도 없었다. 칼럼 주제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빈약한 여성필자의 확대가 선결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4. 결론

신문의 오피니언 면은 언론사 내·외부 필자가 참여하는 공론장이다. 매체 성격상 인터넷과 방송 등과의 속도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신문은 심층적인 해설보도에 주력하게 되었고 칼럼은 다른 매체와의 차별화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신문사 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콘텐츠로도 중요성을 더해왔다. 이런 이유로 중앙지뿐만 아니라 지역신문들도 2개 지면을 오피니언 면으로 할애하는 등 칼럼과 필진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 연구는 대전·충청지역 일간신문인 대전일보와 중도일보, 충청투데이가 지난 10년간 오피니언 면을 어떻게 운용해왔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오피니언 면 운용 초기인 2002년을 시작으로 2006년, 2011년 세 시기 이들 신문 오피니언 면 칼럼 필자의 인적속성은 어떠하며 시기와 신문사 간 변화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봤다. 또 여성필자의 참여는 어느 정도며 이들이 쓰는 글의 주제는 무엇이고 남성필자와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젠더의식이 결핍된 여성보도는 가부장적 질서를 옹호하고 사회의 성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우려를 낳는다(김선남, 2003; 김훈순, 2004; 양정혜, 2002; 유선영, 2003). 이런 점에서 지역신문들이 오피니언 면에 여성필자를 얼마나 포함시키고 이들이 어떤 주제의 글을 쓰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연구결과 대전일보는 2002년 1월 하루 평균 2.2건의 외부칼럼을 실은데 비해 2011년에는 하루 3.1건을 게재했으며 중도일보는 2002년 1.3건에서 2011년 3.2건으로, 충청투데이

는 2002년 1.8건에서 2011년 3.1건으로 칼럼 수는 증가했다. 오피니언 면도 2002년 1개 면에서 2006년과 2011년에는 2개 면으로 늘었다.

이처럼 칼럼 수가 양적으로는 증가했지만 차별화 된 칼럼을 통해 독자에게 신문의 논조와 특성을 드러낸다는 오피니언 면 운용취지를 살리는 데는 실패했다. 신문의 감시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선출직 자치단체장과 의원, 정치인들이 필진에 포함되어 있었고 대학총장과 학장, 공기업 사장, 기업의 CEO 등도 칼럼을 통해 자신이 속한 학교와 기업홍보를 버젓이 하고 있었다. 특히 작년에는 A신문, 올해는 B신문, 내년에는 C신문 식으로 돌아가며 글을 연재하는 총장과 교수들이 많아 칼럼을 통한 신문의 차별화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 같은 문제는 칼럼 필자의 직업분석에서 확연히 드러났는데 세 신문 필자는 교수가 가장 많았고 전·현직 정치인/관료/공무원, 기업인/기업단체에 집중된 반면 연구원, 시민운동가/단체, 전직 언론인, 전문직(법조인, 변호사, 의사)은 부진했다. 특히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위치해 과학도시로 알려진 대전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과학기술칼럼이 부족하다는 것은 지역신문이 지역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독자확보 측면에서도 실패했다는 반증이다.

분석대상 신문 가운데 중도일보에 교수필진이 가장 많았는데 다른 신문 필진으로 활동했던 교수들이 많아 신문의 특색을 찾아보기 힘들었고 충청투데이는 정치인과 공무원 필자 비율이 타 신문의 배에 달했다. 선출직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시·도청 실국장 등이 대부분이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주 광고주인 동시에 주 독자층이고 신문사 주최 각종 행사 협찬자라는 점에서 이들에게 오피니언 면을 배정한다는 것은 공론장이 되어야 할 지면을 특정 기관단체가 독식하는 문제와 함께 오피니언 면을 광고, 구독, 협찬과 연계 시킨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는 대전일보 칼럼에 많이 등장하는 기업인/기업단체도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지역신문의 거대 광고주여서 지역신문이 감시 비판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기관, 지역기업들을 오피니언 필진으로 포진시키고 있는 것은 신문사의 노림수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대전충남민언련, 2011).

다양한 직업군을 갖지 못한 필진들이 쓴 칼럼은 한계가 있었다. 지역현안과 정치사회문제에 즉각적인 해설이나 의견, 주장을 담은 현안논평 칼럼과 특정이슈에 대한 전문가적 견해와 정책대안을 담은 전문가의견 칼럼이 현저히 부족했다. 3개 신문 칼럼의 80%가 비전문가의 의견 칼럼, 교양지식 전달과 가십 및 기타칼럼이었다. 자신이 속한 기관과 단체, 학교의 정책과 제도를 설명 홍보하거나 일상과 관련한 평범한 글들이어서 중요이슈에 대한 독자들의 판단 잣대가 될 만한 칼럼은 찾기 힘들었다.

정치, 경제, 문화, 복지, 교육, 여성, 환경, 과학, 일상으로 나눠 본 칼럼주제 분류에서도 세 신문의 편중현상은 심각했다. 일상생활과 신변잡기를 다룬 연성칼럼이 주를 이뤘고 정치와 지방자치, 교육분야 정책홍보에 집중된 반면 여성과 여권, 환경, 과학기술칼럼은 부진했다. 모든 칼럼이 비판적인 논조를 보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문이 다양한 독자층에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칼럼소재의 다양성과 전문성, 심층성 향상에도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드러냈다.

연구문제 2는 지역신문 오피니언 면에서 여성필자의 참여는 어느 정도며 이들이 어떤 주제의 글을 쓰는지, 남성필자와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분석결과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여성필진 수는 대단히 취약했다. 오피니언 면 운용초기인 2002년 대전일보의 여성필자는 전체 필진의 12.1%, 중도일보 5.7%, 충청투데이 2.2%였다. 오피니언 면이 2개로 증면된 2006년 여성필자는 조금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대전일보가 22.5%, 중도

일보가 15.3%, 충청투데이가 6.9%였다. 그러나 최근인 2011년 대전일보의 여성필자는 8.9%, 중도일보 8.5%, 충청투데이 2.9%로 다시 하락해 2002년보다 못한 참여율을 보였다. 이러한 여성필자 비율은 중앙일간신문들이 10%이상의 여성필자 수를 보이는 것보다도 낮아 대전·충청지역 신문들의 여성필자 활용이 훨씬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필자의 직업분류에 교수가 가장 많고 다음이 전·현직 정치인과 공무원, 기업인/기업단체 순이었다면 여성은 시민운동가/시민단체가 27.5%로 가장 많았고 문화예술인, 학생/교사가 주류를 이뤘다. 특히 초·중·고교 교사, 시민단체 활동가, 예술가 등으로 편중돼 다양한 여성필자 개발이 필요함을 드러냈다. 대전일보 여성필자의 39%는 교사·학생 등 학교관련 인물 이었고 중도일보 여성필자의 44.4%는 문화예술인이었다. 또 여성필자가 수적으로 많지 않은 충청투데이의 정치인/공무원, 시민운동가였다.

성별에 따른 칼럼종류에서도 여성필자의 절반 가까이(42.6%)는 교양지식 전달과 가십 및 기타(29.6%)칼럼에 집중돼 있었다. 이처럼 현안논평과 전문가의견 칼럼이 부족하다는 것은 ‘여성필자=일상소재 글’이라는 이미지를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어 여성필자의 수적 증가 못지않게 다양한 여성들이 오피니언 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자 발굴 노력이 시급함을 보여줬다.

정치, 경제, 문화, 복지, 교육, 여성, 환경, 과학, 일상으로 세분화한 칼럼 주제분류에서도 여성필자들은 교육과 일상생활을 주로 다뤘다. 교육관련 주제가 많은 것은 대전일보 ‘교단 일기’ 필자의 대부분이 여교사와 여학생이기 때문이며 이들이 다루는 주제는 교육과 일상이었다. 칼럼의 다양한 주제 가운데 대전일보 여성필자에게서는 보건/복지/노동, 환경, 과학기술 주제가 전혀 없었고 중도일보도 여성/여권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충청투데이의 환경, 과학기술과 함께 여성생활과 관련이 깊은 경제칼럼이 한 건도 없었다.

이 연구에서는 대전·충청지역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들이 오피니언 면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2002년 오피니언 면 운용초기보다 최근인 2011년이 필자의 직업과 칼럼소재 면에서 훨씬 부실함을 드러냈다. 이는 산업적 위기와 저널리즘적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는 지역신문의 벼랑 끝 위기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신문이 주민들의 공론장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의제설정(agenda setting)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신문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오피니언 면 필진운용부터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장원·최철웅·이병철·장하용(2007) 한국신문의 외부 칼럼, 칼럼니스트: 여론형성의 지형도 분석. 서울: 한국언론재단.
- 김경모·김연정(2005). 일간지의 여성인물 보도방식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통권 29호, 7~41.
- 김선남(2003). 텔레비전 뉴스와 여성. 한은경·이동후(2003)편. 『미디어의 성과 상』, 241~264. 서울: 나남.
- 김훈순(2004). 한국 언론의 젠더 프레임: 범죄 뉴스와 여성. 『한국언론정보학회』, 통권 27호, 63~91.
- 김은규(2007) 다매체시대, 뉴스 시장의 변화와 여론 다양성.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 발표문, 53~67.
- 정대필(2009). “칼럼이 신문 차별성 부각시켜” 고정칼럼 ‘마감선언’한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신문과 방송』, 3월호, 8~12.
- 박선이·김경모·고민경(2010). 한국 신문 오피니언 칼럼의 젠더특성 분석: 여성 필자의 과소 재현과 성 불평등 구조. 『한국언론학회』, 제54권 1호, 55~81.
- 박주연·전범수(2009). 미디어 시장의 다양성 연구: 시장 집중도 측정을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46권 1호, 37~61.
- 반현(2005). 시민사회의 공론장으로서 신문위기 연구. 『한국정치정보연구』, 제8권 2호, 285~309
- 배인준(2003). 『한국 신문의 오피니언 칼럼 운용실태와 질 제고방안』.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종목(2005). 인터넷신문의 공론장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제 13권 4호, 5~29.
- 양승혜·강혜주(2007). 서울대 나와 미국박사 탄 영남출신 51세 남자교수: 누가 칼럼을 쓰는가? 『신문과 방송』, 4월호, 12~23.
- 양정혜(2002). 대중매체와 여성 정치인의 재현: 시사 월간지와 여성월간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46권 2호, 417~452.
- 유선영(2002). 『여성과 언론: 여성보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유선영(2003). 『미디어 조직과 성차별』.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이재경(2000). 『오피니언 면의 현황과 발전방향』, 삼성언론재단 세미나 자료집.
- 이원섭 (2010) 국내 신문의 사외칼럼과 사실 논조의 상관관계 분석 『언론과학연구』 제10권2호 421~469
-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2011). 외부필진의 절반이상 이 기관단체장: 지역신문의 공론장 역할 전혀 못해. 지역신문 외부필진 분석 모니터 보고서.

주제발표

통계로 보는 대전 여성의 삶

천 지 아

대전일보 경제부 기자

■ 배경·목적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활약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제16회 여성주간을 맞아 대전 여성에 관련한 통계자료를 통해 지역 여성의 삶의 모습(인구·가정생활·사회생활) 살펴보고자 함.

■ 작성방법

충청지방통계청(대전·충남·충북)의 발표 자료에서 대전 여성 관련 통계를 요약 정리했음.

현재 충청지방통계청은 2003년부터 매년 여성주간에 관련 통계를 생산·발표하고 있음.

■ 기대효과

대전지역 여성에 대한 다각적인 통계자료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어, 각종 여성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객관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것으로 보임.

I. 대전여성의 일생

1. 여성 인구

2010년 대전 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9.7%임

○ 2010년 대전의 총 인구는 151만5000명이고 이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9.7%임.

- 전년대비 대전 여성 인구는 0.6% 증가했음.

< 인구 추이 >

(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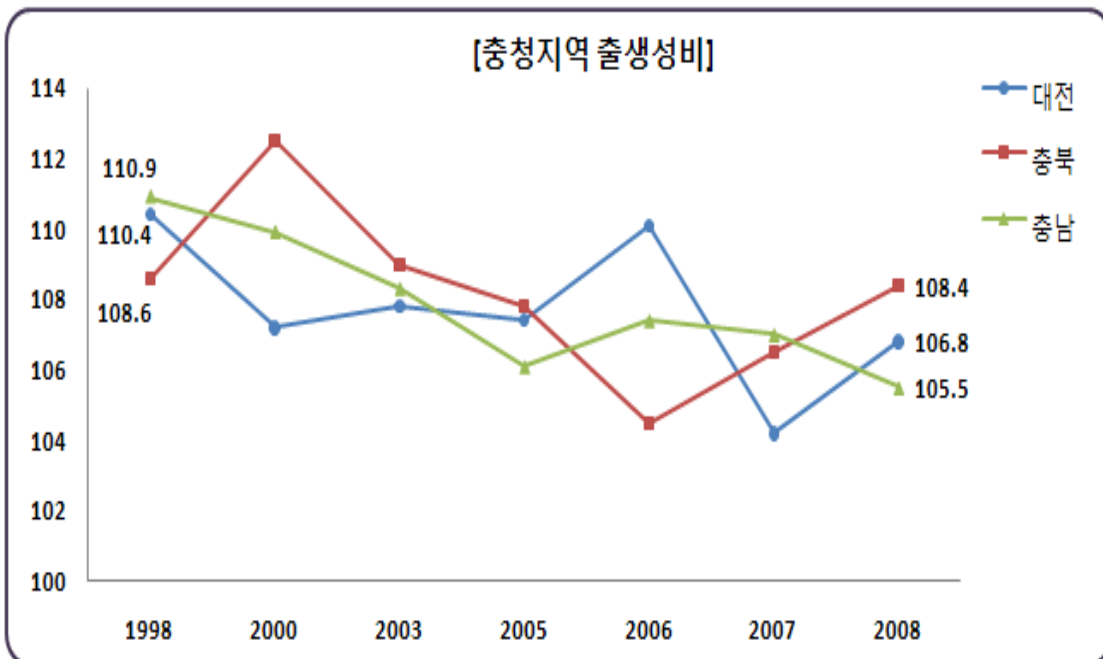
		1980	1990	2000	2006	2007	2008	2009	2010
전국	여성	18,888	21,301	23,341	24,030	24,112	24,191	24,265	24,334
	증감률	1.5	1.0	0.8	0.3	0.3	0.3	0.3	0.3
	남성	19,236	21,568	23,667	24,267	24,344	24,416	24,481	24,540
	증감률	1.6	1.0	0.9	0.3	0.3	0.3	0.3	0.2
대전	여성	402	511	690	733	738	743	748	753
	증감률	4.4	3.2	1.4	0.6	0.7	0.7	0.7	0.6
	남성	418	525	707	744	748	753	758	762
	증감률	4.6	3.4	1.4	0.5	0.6	0.6	0.6	0.6
충북	여성	708	683	742	734	733	732	730	729
	증감률	-1.4	0.4	0.6	-0.1	-0.2	-0.2	-0.2	-0.2
	남성	742	691	753	750	751	751	750	750
	증감률	-1.4	-0.3	0.8	0.1	0.0	0.0	0.0	0.0
충남	여성	1,079	980	932	951	953	955	957	959
	증감률	-1.4	-1.3	0.5	0.3	0.2	0.2	0.2	0.2
	남성	1,111	1,012	948	978	983	989	994	999
	증감률	-1.6	-1.3	0.5	0.7	0.6	0.6	0.5	0.5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각년도

2. 여아 출생아 수

2008년 태어난 여아는 대전 7183명으로 남아보다 490명 적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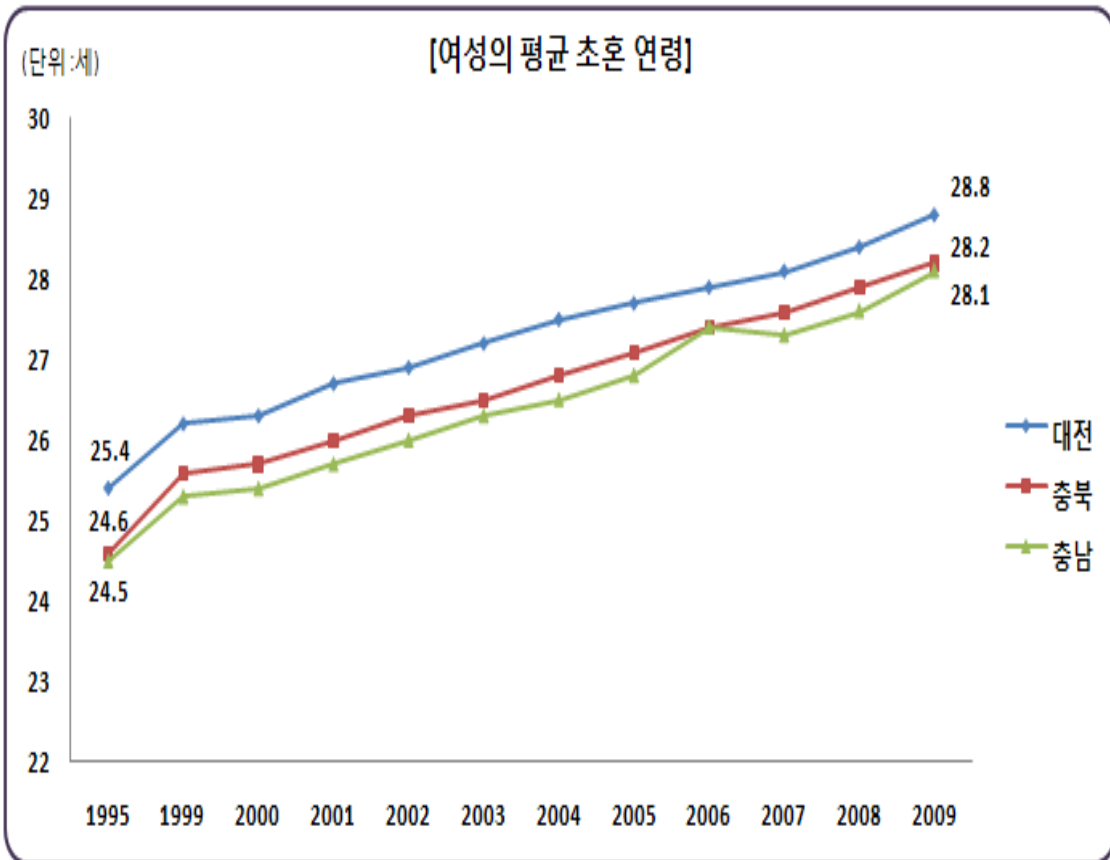
- 2008년 태어난 총 출생아는 대전 1만4856명이며 이 중 여아는 대전 7183명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적게 태어남.
 - 총 출생아수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수)는 대전 106.8수준임.
- 출생아수는 1998년과 비교하여 대전 4238명이 감소하였으며 여아는 대전 1890명 감소함.



3. 혼인

2009년 여성 평균 초혼연령은 대전 28.8세로 매년 높아지고 있음

- 2009년 대전의 평균 초혼연령은 여성 28.8세, 남성 31.3세로 남성이 2.5세 높았음.
- 대전·충북·충남지역의 평균 초혼 연령의 남녀 차이는 각각 2.5세, 3.0세, 3.1세로 대전이 타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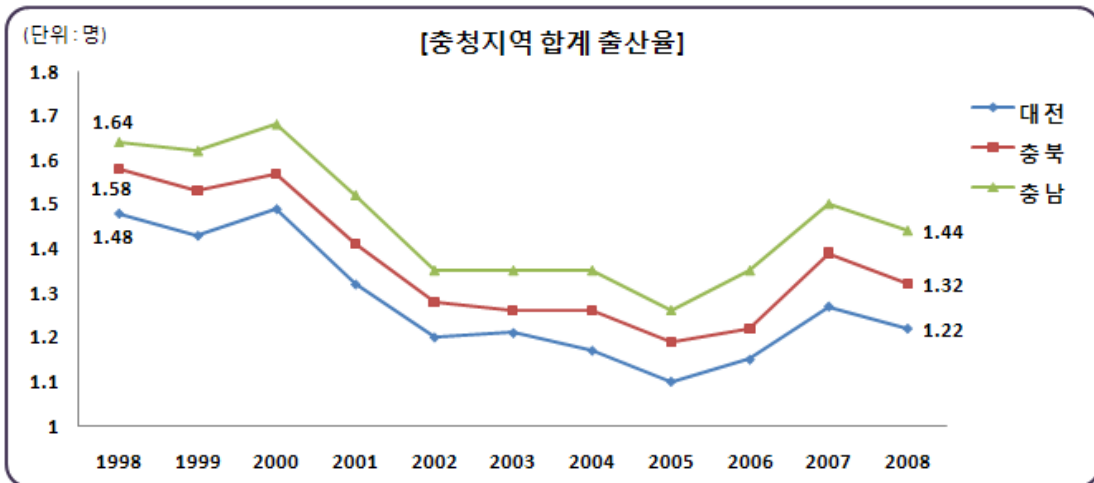


4. 합계출산율

2008년 합계출산율은 대전 1.22명으로 전년보다 0.05명 감소

- 2008년 합계출산율은 대전 1.22명으로 2007년보다 감소했음.

*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



< 합계출산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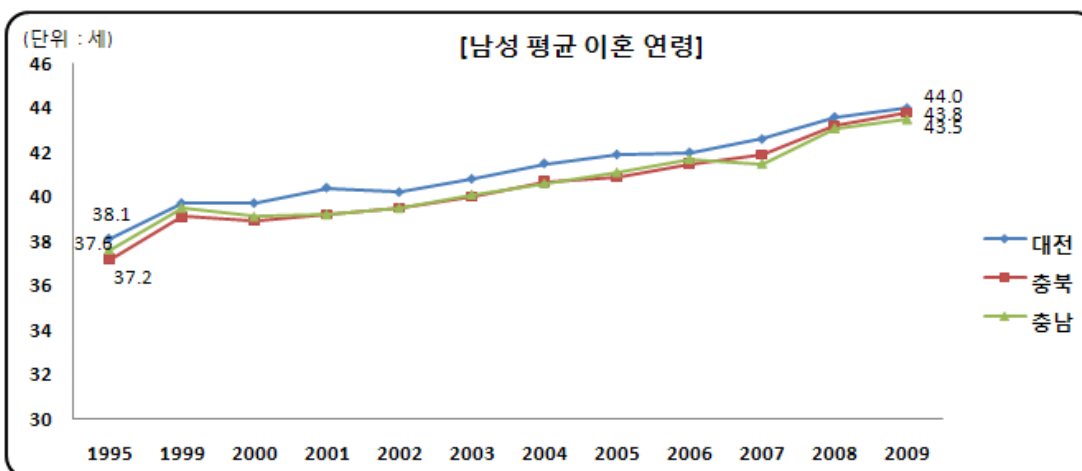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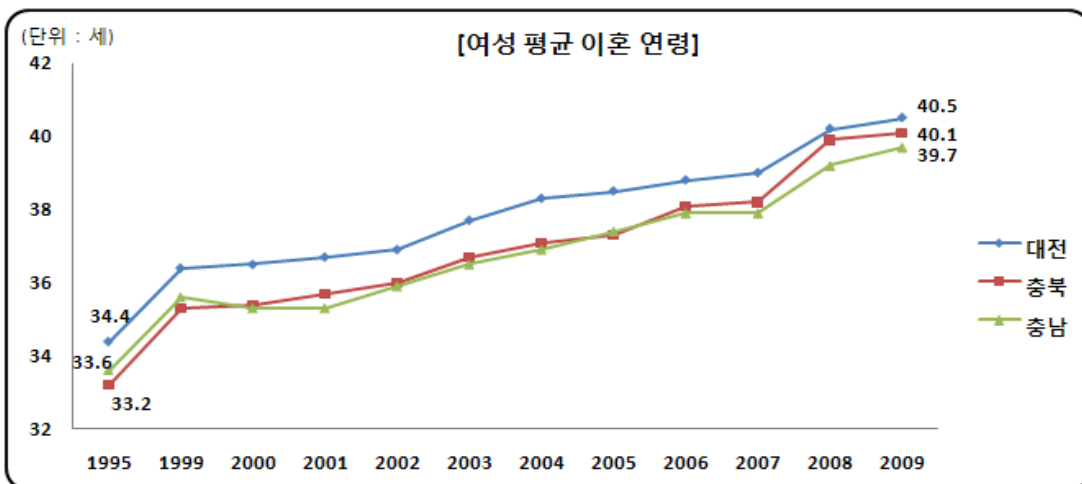
(단위 : 가임여성 1명당 명)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국	1.45	1.41	1.47	1.30	1.17	1.18	1.15	1.08	1.12	1.25	1.19
대전	1.48	1.43	1.49	1.32	1.20	1.21	1.17	1.10	1.15	1.27	1.22
충북	1.58	1.53	1.57	1.41	1.28	1.26	1.26	1.19	1.22	1.39	1.32
충남	1.64	1.62	1.68	1.52	1.35	1.35	1.35	1.26	1.35	1.50	1.44

5. 이혼

2009년 여성 평균 이혼연령은 대전 40.5세로 매년 높아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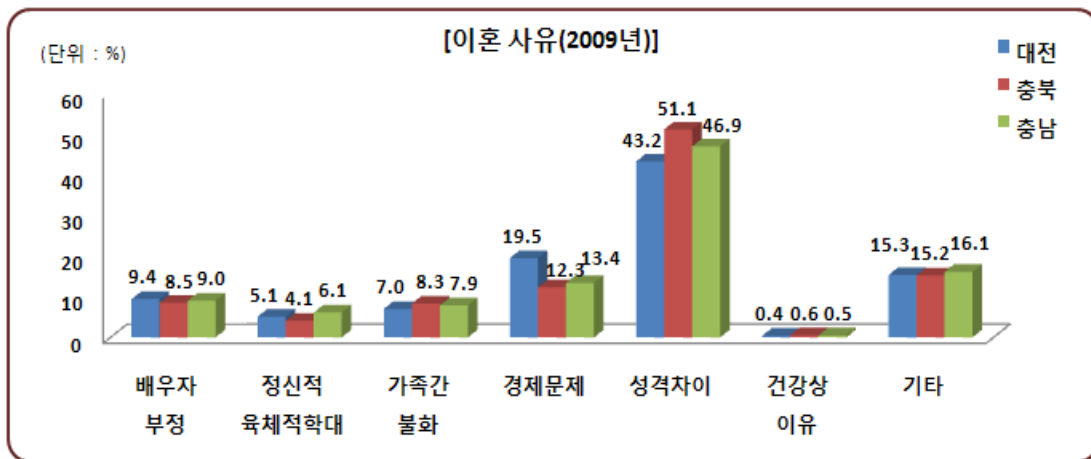
- 2009년 평균 초혼연령의 상승과 더불어 평균 이혼연령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임
- 2009년 대전의 평균 이혼연령은 여성 40.5세, 남성 44.0세로 남성이 3.5세 높음



6. 이혼 사유

대전지역 이혼의 주된 사유는 '성격차이'로 나타남

- 2009년 대전지역 이혼 사유는 '성격차이'가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다음이 기타를 제외한 '경제문제'와 '배우자 부정' 순으로 나타남.



< 이혼사유별 이혼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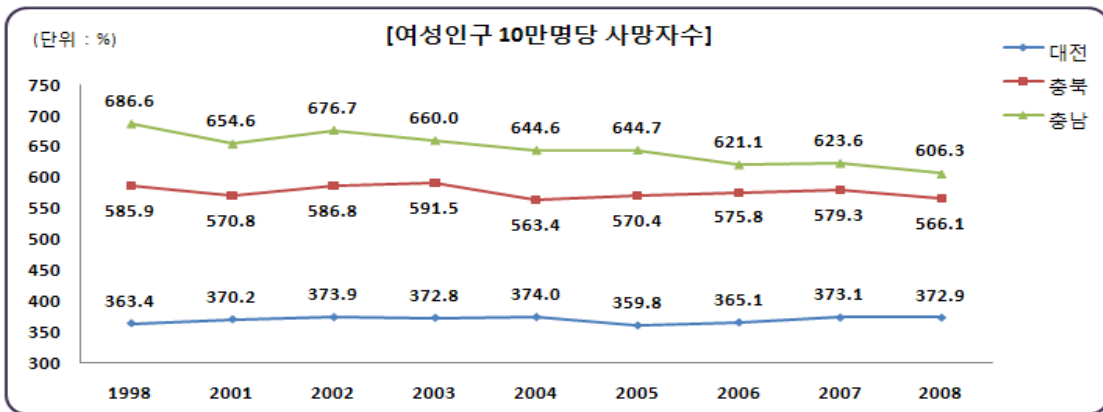
		계	배우자 부정	정신적 육체적학대	가족간 불화	경제문제	성격차이	건강상 이유	기타 ¹⁾
전국	2008	100.0	8.1	5.1	7.7	14.2	47.8	0.6	16.5
	2009	100.0	8.4	5.0	7.4	14.4	46.6	0.6	17.6
대전	2008	100.0	7.7	5.0	7.1	14.1	46.3	0.6	19.3
	2009	100.0	9.4	5.1	7.0	19.5	43.2	0.4	15.3
충북	2008	100.0	7.8	4.8	6.9	12.8	52.4	0.6	14.8
	2009	100.0	8.5	4.2	8.3	12.3	51.1	0.6	15.2
충남	2008	100.0	9.6	5.2	8.8	14.1	46.2	0.7	15.4
	2009	100.0	9.0	6.1	7.9	13.4	46.9	0.5	16.1

7. 사망

2008년 여성인구 10만명 당 사망자는 대전 372.9명임

- 대전지역 남녀 사망률비를 보면 대전의 남성 사망률이 여성 사망률보다 1.2배 높음.

* 사망률비=남성 사망률/ 여성 사망률



< 성별 사망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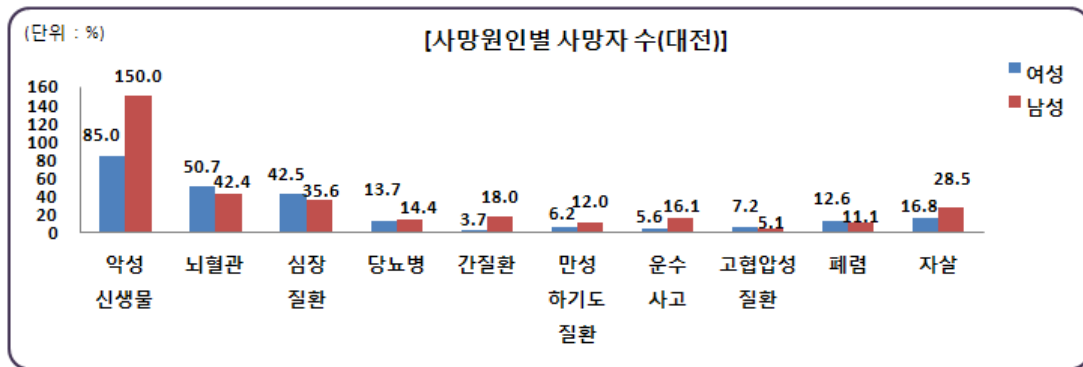
(단위 : 인구 10만명당 명)

		1998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국	여성	457.4	450.7	461.2	455.4	451.0	451.1	445.2	448.7	443.0
	남성	580.5	557.8	557.9	556.6	556.1	550.5	545.7	547.9	553.1
	남녀 사망률비	1.3	1.2	1.2	1.2	1.2	1.2	1.2	1.2	1.2
대전	여성	363.4	370.2	373.9	372.8	374.0	359.8	365.1	373.1	372.9
	남성	454.7	447.6	437.8	442.0	447.1	432.5	443.8	435.6	452.9
	남녀 사망률비	1.3	1.2	1.2	1.2	1.2	1.2	1.2	1.2	1.2
충북	여성	585.9	570.8	586.8	591.5	563.4	570.4	575.8	579.3	566.1
	남성	773.9	720.8	747.4	728.2	713.5	726.3	698.1	704.4	717.2
	남녀 사망률비	1.3	1.3	1.3	1.2	1.3	1.3	1.2	1.2	1.3
충남	여성	686.6	654.6	676.7	660.0	644.6	644.7	621.1	623.6	606.3
	남성	900.2	819.2	845.1	828.2	798.9	773.7	750.6	771.2	746.7
	남녀 사망률비	1.3	1.3	1.2	1.3	1.2	1.2	1.2	1.2	1.2

8. 사망 원인

2008년 대전지역 여성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은 ‘암’

- 2008년 대전 여성은 암(인구 10만명당 85.0명)으로 가장 많이 사망했고 다음이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자살, 당뇨 등의 순이었음.
- 여성사망률이 남성보다 높은 사인(死因)으로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고혈압성질환으로 나타났음.



< 2008년 10대 사망원인의 성별 사망률 >

(단위: 인구 10만명당 명)

		전체	암 신생물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당뇨 병	간 질환	만성 하기도 질환	운수 사고	고혈압 성 질환	폐렴	자살
대전	전체	413.0	117.6	46.5	39.0	14.1	10.8	9.1	10.8	6.2	11.8	22.7
	여성	372.9	85.0	50.7	42.5	13.7	3.7	6.2	5.6	7.2	12.6	16.8
	남성	452.9	150.0	42.4	35.6	14.4	18.0	12.0	16.1	5.1	11.1	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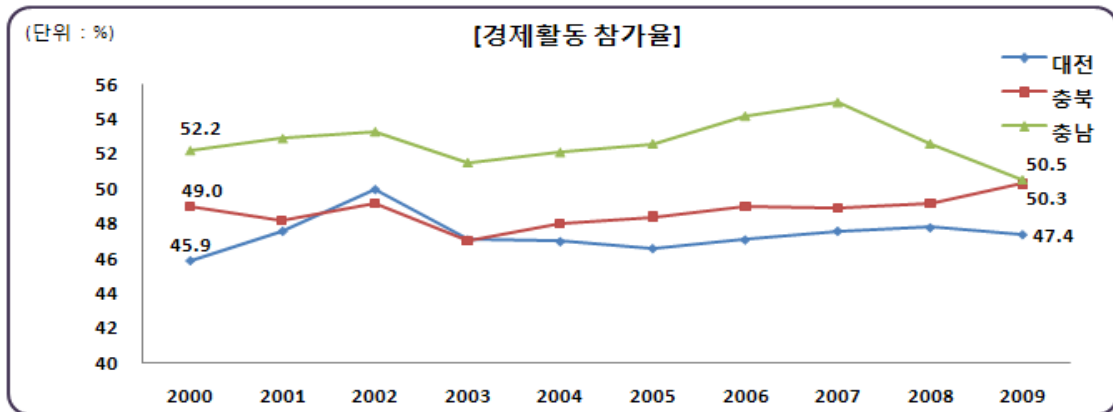
Ⅱ. 대전여성의 사회생활

1. 경제활동 참가율

2009년 대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7.4%

○ 2009년 대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7.4%로 전국 평균(49.2%)보다 1.8%p 낮음.

- 2009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년보다 대전 0.4%p 하락.



< 경제활동 참가율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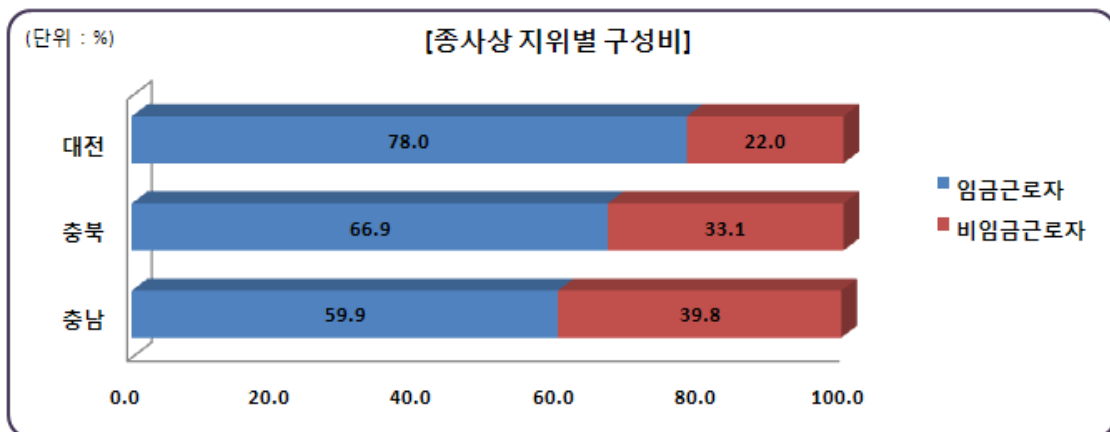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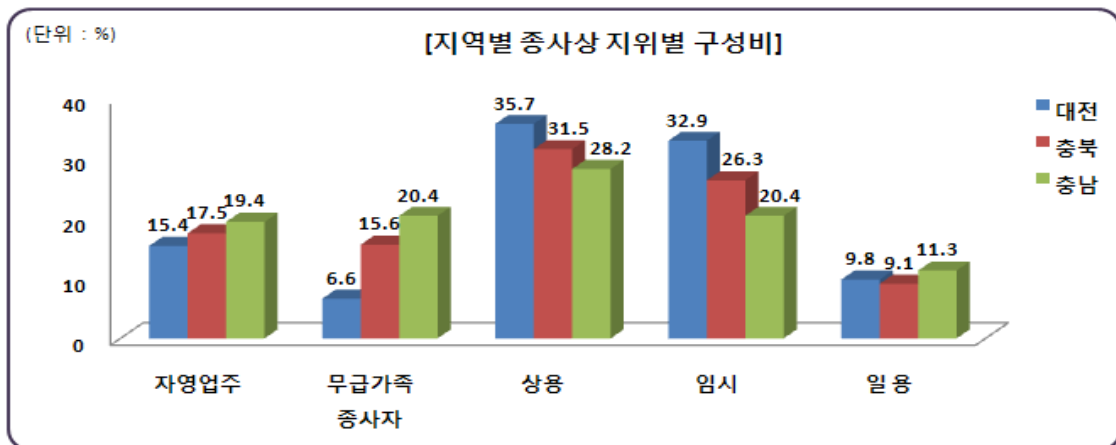
	전국		대전		충북		충남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00	48.8	74.4	45.9	70.0	49.0	71.8	52.2	74.0
2001	49.3	74.3	47.6	71.7	48.2	72.1	52.9	74.0
2002	49.8	75.0	50.0	72.4	49.2	72.4	53.3	75.1
2003	49.0	74.7	47.1	72.9	47.0	72.6	51.5	76.7
2004	49.9	75.0	47.0	73.1	48.0	72.6	52.1	77.9
2005	50.1	74.6	46.6	71.1	48.4	71.1	52.6	76.9
2006	50.3	74.1	47.1	71.2	49.0	70.1	54.2	77.1
2007	50.2	74.0	47.6	71.6	48.9	71.4	55.0	77.6
2008	50.0	73.5	47.8	72.4	49.2	72.4	52.6	75.2
2009	49.2	73.1	47.4	71.9	50.3	71.3	50.5	74.6

2. 취업자의 종사상 구성비

2009년 여성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대전 78.0%로 나타남

○ 2009년 여성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대전 78.0%임.

- 대전지역 여성취업자의 비임금 근로자 비율은 22%였고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는 32.9%임.
- 남성 취업자와 비교할 때 자영업주 비율이 현저히 낮고 임시·일용근로자 비율은 높게 나타났음.



3.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종사자 비율

2009년 대전 여성의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종사자 비율은 24.8%

- 2009년 여성 취업자 중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종사자 비율은 대전 24.8%로 2008년에 비해 1.5%p 하락했음.
-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전국적으로 여성 전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와 비교했을 때 대전은 2006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고 있음.

< 여성의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종사자 >

(단위 :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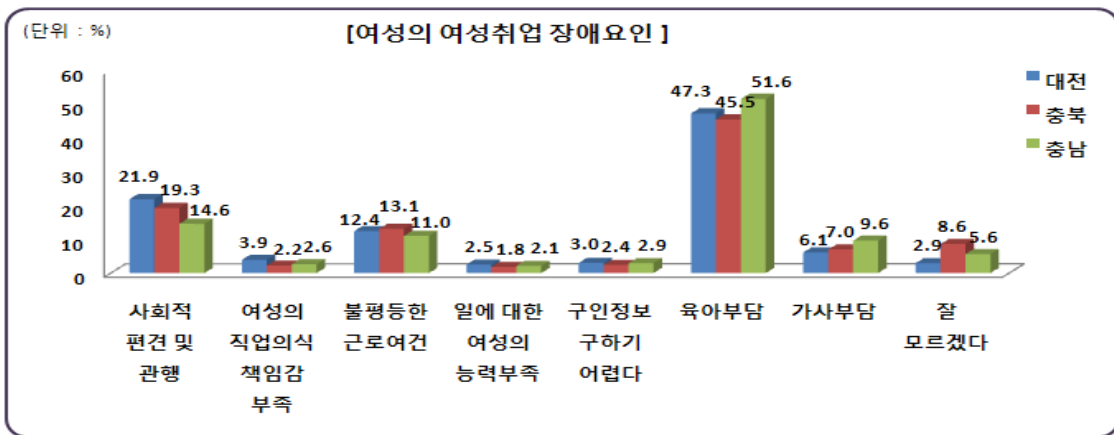
		여 성 취업자	전문·기술· 행정관리직 종사자	전문·기술· 행정관리직 종사자비율	남 성 취업자	전문·기술· 행정관리직 종사자	전문·기술· 행정관리직 종사자비율
전국	2005	9,526	1,622	17.0	13,330	2,577	19.3
	2006	9,706	1,768	18.2	13,444	2,674	19.9
	2007	9,826	1,841	18.7	13,607	2,811	20.7
	2008	9,874	1,954	19.8	13,703	2,978	21.7
	2009	9,772	2,016	20.6	13,734	2,957	21.5
대전	2005	263	62	23.6	383	95	24.8
	2006	270	69	25.6	391	101	25.8
	2007	280	70	25.0	400	107	26.8
	2008	285	75	26.3	411	119	29.0
	2009	286	71	24.8	412	114	27.7
충북	2005	286	42	14.7	396	56	14.1
	2006	292	39	13.4	394	56	14.2
	2007	291	38	13.1	403	55	13.6
	2008	295	41	13.9	415	56	13.5
	2009	308	53	17.2	416	55	13.2
충남	2005	390	42	10.8	541	74	13.7
	2006	412	45	10.9	555	77	13.9
	2007	425	48	11.3	573	77	13.4
	2008	409	52	12.7	564	81	14.4
	2009	397	55	13.9	564	76	13.5

4. 취업 장애요인

2009년 대전 여성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취업 장애는 ‘육아부담’

○ 2009년 대전 여성의 가장 큰 취업 장애요인은 ‘육아부담’이 47.3%로 나타남.

- 또한 ‘사회적 편견 및 관행’은 대전 21.9%, 충남 14.6%, 충북 19.3%, 로 대전지역에서 높게 나타남.



< 여성취업 장애요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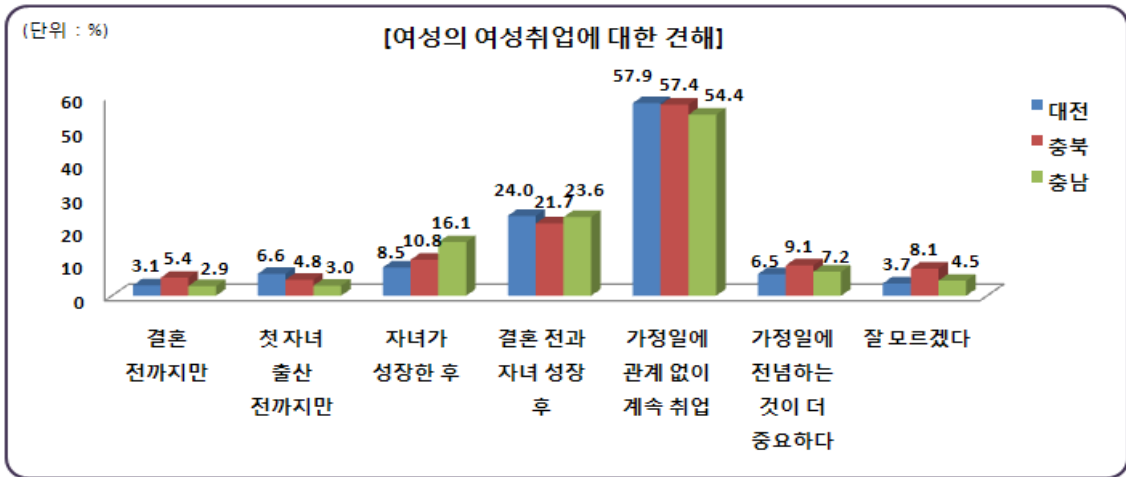
(단위 : %)

	전체	계	사회적 편견 및 관행	여성의 직업의식 책임감 부족	불평등한 근로여건	일에 대한 여성자신의 능력부족	구인정보를 구하기 어렵다	육아부담	가사부담	기타	잘 모르겠다
전국	전체	100.0	20.9	3.9	10.7	1.9	2.6	47.6	6.1	0.0	6.3
	여성	100.0	19.6	2.8	11.5	1.5	3.0	49.9	6.3	0.0	5.3
	남성	100.0	22.2	5.0	9.8	2.3	2.2	45.2	5.9	0.1	7.4
대전	전체	100.0	22.6	5.8	11.3	2.6	2.3	46.5	5.2	0.0	3.6
	여성	100.0	21.9	3.9	12.4	2.5	3.0	47.3	6.1	-	2.9
	남성	100.0	23.3	7.9	10.1	2.7	1.6	45.8	4.2	0.1	4.4
충북	전체	100.0	21.1	3.5	11.5	2.8	2.5	42.9	6.5	-	9.2
	여성	100.0	19.3	2.2	13.1	1.8	2.4	45.5	7.0	-	8.6
	남성	100.0	22.9	4.8	9.9	3.8	2.6	40.2	5.9	-	9.8
충남	전체	100.0	16.6	3.8	10.1	2.4	2.1	49.4	8.9	0.1	6.7
	여성	100.0	14.6	2.6	11.0	2.1	2.9	51.6	9.6	-	5.6
	남성	100.0	18.5	5.0	9.1	2.7	1.3	47.1	8.2	0.1	7.8

5.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대전여성 57.9% “가정일에 관계없이 취업을 해야한다”

- 2009년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중 “여성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로 응답한 여성은 대전 89.8%.



< 여성취업에 관한 견해 >

(단위 : %)

	전체	계	가정일에 전념하는 것						가정일에 전념하는 것이 좋다	잘 모르겠다
			가정일에 전념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	결혼 전까지만	첫 자녀 출산 전까지	자녀 성장 후	결혼 전과 자녀 성장 후		
전국	전체	100.0	9.3	83.8	4.8	6.9	11.5	23.3	53.5	6.9
	여성	100.0	8.0	86.6	4.0	5.9	10.8	23.5	55.9	5.4
	남성	100.0	10.7	80.8	5.8	8.0	12.3	23.0	50.9	8.5
대전	전체	100.0	8.7	87.1	4.1	7.4	9.5	24.8	54.3	4.2
	여성	100.0	6.5	89.8	3.1	6.6	8.5	24.0	57.9	3.7
	남성	100.0	10.9	84.3	5.2	8.3	10.6	25.6	50.3	4.7
충북	전체	100.0	10.2	81.2	5.2	5.9	13.6	23.0	52.2	8.6
	여성	100.0	9.1	82.8	5.4	4.8	10.8	21.7	57.4	8.1
	남성	100.0	11.3	79.7	5.1	7.2	16.5	24.5	46.7	9.0
충남	전체	100.0	8.2	85.6	3.8	5.0	16.2	23.2	51.9	6.2
	여성	100.0	7.2	88.3	2.9	3.0	16.1	23.6	54.4	4.5
	남성	100.0	9.2	82.8	4.8	7.0	16.2	22.8	49.1	8.0